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반한(反韓) 들끓는 일본 위안부를 바라보는 세가지 관점

일본인들, 언제까지 한국에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는가 의문 가져
과거사 문제는 반일 아닌 반제국주의, 인류보편적 문제로 접근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2013년 11월 이후 사상 최고인 67%를 기록했다. 부산 총영사관 위안부 소녀상 설치 이후 주일 대사를 소환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결과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일본사회의 반응에

한국인들은 얼떨떨하다. 양국 국민들의 감정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지만 상대국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양국은 2015년 12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합의 이후 양국 국민간의 감정의 골은 훨씬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1. 사과문제

한일양국은 위안부 등 식민통치 배상에 관해 첫단추부터 잘못 끼었다. 박정희 정권하에 있던 한국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조 1항)" 는 내용을 넣는 우를 범했다. 일본으로부터 5억달러(3억달러 무상, 2억달러 유상)를 받긴 했지만 일본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다. 이 지원에 대해 한국은 독립축하금, 일본은 배상금이라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1965년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인지하지 않은 채 일본이 돈으로 문제를 하려고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반면 일본인들도 위안부 협상을 계기로 한국이 때를 쓰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1965년에 5억달러를 주었고, 기본조약 체결 당시 양국이 파악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93년과 1995

엄성준 총영사 발로 뛰는 영사상 수상

재외동포신문, 총 11명의 부문별 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엄성준 주 보스톤 총영사가 재외동포신문 주최 '발로 뛰는 영사상'에 선정됐다. 보스톤 공관 설립 이래 재임했던 영사중 이 같은 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재외동포신문은 1월 13일 인터넷판을 통해 엄성준 총영사가 전세계 재외공관 총영사부에서 수상한 4명중의 1명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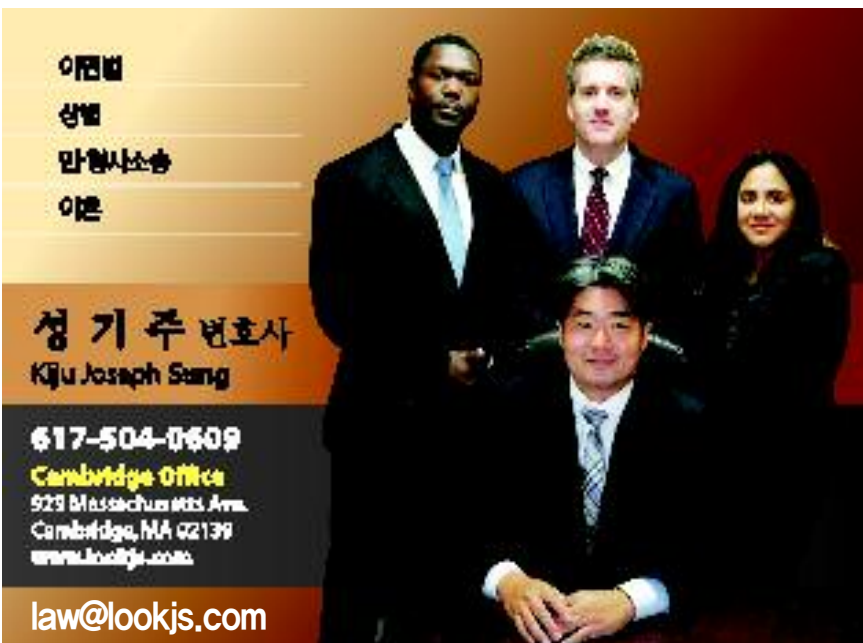
엄성준 주 보스톤 총영사

재외동포신문에 따르면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등 4명의 심사위원들은 1월 10일 세계 각지의 한인회와 한인단체에서 보내온 '추천서'를 놓고 엄총영사 등 11명의 수상자를 결정했다. 심사위원단들이 뽑은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한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6면으로 계속



작년 12월 수도 워싱턴 DC의 중심지 내셔널 몰에서 공개된 위안부 소녀상은 현재 적절한 설치 장소를 찾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사)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한국행 항공권 \$850~

KOREA JAPAN PACKAGE

왕복항공권(한국행 포함)
\$1,690~

IACE TRAVEL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617.731.1001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9777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반일 아닌 인류공통의 인권문제로 접근 필요

▶▶1면에 이어서
년, 2010년 세차
레에 걸쳐 사과를 했는데 언제까지 사과를 반
복해야 하느냐” 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본은 사과와 부인의 갈 지(之)자 행
보를 이어왔다. 세차레 사과와 더불어 일본 보
수 자민당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총리가 각각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1993년의 고노 담
화는 “한국과의 정치적 협상” 이었다고 폄하
해 파장을 일으켰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
사과와 반복의 행위를 보이는 일본 정부의 행
보가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느끼지 못한다.

2. 배상문제
일본인들이 위안부 문제에서 관심을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배상문제다. 보스턴 유학생 S씨
는 “일본인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일본이 한국에 끌려다니며 돈을 주어야 하는가
에 대한 반발이 있다” 고 말했다.

앞서 말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외에도 일
본정부는 위안부 피해 여성을 위한 기금을 마
련한 적이 있다. 1995년 무라야마 내각때 여성
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6억엔을 지출했
고, 이번 아베정권에서 위안부 재단을 만들어
10억엔을 한국정부에 건넸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 언론들은 배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극
우신문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진보 언론
에 속한다는 아사히신문, 마이니치 신문, 도쿄
신문 등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이
니치 신문은 작년 8월 13일 한국정부가 설립한

‘화해 치유 재단’ 의 김태현 이사장의 말을
빌려 일본측이 출연하는 10억엔은 실질적으로
배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 작년 8월 제 1244차 위안부 명예회복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
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사과와 명예
회복을 원한다” 며 “일본정부는 20년간 단 한
번도 만나준 적도 없으면서 돈으로 위안부 문
제를 해결하려 한다” 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성토했기도 했다. 특히 할머니들은 일본
이 지급하는 돈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통감해 일본정부가 지급한 배상이 아니라 민간
단체를 통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과
약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일본의 배상금을 수령하기
도 했지만 대부분의 위안부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며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거부해오고 있다.

3. 위안부 문제 제기는 반일교육 탓?
일본 내에서는 한국인들의 위안부 반응에 대
해 ‘한국인들이 반일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위
안부 문제에 대해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사고의 시작
은 연일 생산되는 일본의 반한(反韓)감정 부추
기기도 한몫한다.

일본에서 정치적 석사학위를 준비 중인 최
모 씨는 “단순히 일본 신문을 보고 있으면 나
도 모르게 반한(反韓)감정이 생길 정도로 독자

를 현혹하는 왜곡보도가 많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세계 경제순위 3위의 경제 선진
국이지만 언론 자유도는 72위에 그치며, 일본
의 반한감정은 일본 언론이 퍼뜨리는 거짓 반
일(反日)의 결과” 라고 말했다.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인
들의 반일감정이 이유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
이 많다. 일본인 유학생 S씨는 “일본인들은 한
국인들이 일본인을 왜곡하고 폄하하기 위해 소
녀상을 세계 곳곳에 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며 “한국인들이 굳이 소녀상을 외국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반일문제가 아니라 반
제국주의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
다. 미국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위안부 문제는 반일활동이 아니라 홀로코스
트 문제와 같은 인류의 인권문제” 라고 선을
명확히 했다.

유대인들은 2차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기
억하고자 세계 곳곳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만
들었다. 터키로부터 학살을 당한 아르메니아인
들도 보스턴 하버 근처에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 이처럼 비인도적인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서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인권회복에 대
한 세계적 움직임이 이어져왔다.

4. 반일이 아닌 반제국주의, 인류 공통의 문제
로 접근해야
위안부 문제는 결코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중국, 대만, 필리핀과 동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 멀리는 당시 네덜란드
령 동인도를 차지하고 있던 네덜란드까지 광범
위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줄을 이어왔다
.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위안부 모집의 강제
성을 확인 할 증거가 없다” 고 말한 것과 달리,
유엔에서는 1993년 국제법률위원회를 시작으
로 1996년 쿠라마스와미 특별보고서, 2014년 유
엔 인권최고대표 나비 필레이의 위안부 보고서
까지 국제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와
그 입장은 명확하다.

이에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
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잇따
랐다. 피해당사국인 네덜란드 하원(2007년), 필
리핀 하원(2008년), 대만 입법원(2008년) 뿐만
아니라 캐나다 하원(2007년), 호주 상원(2007년
, EU (2007년) 등도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은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 의원의 노력으로 하
원(2007년)과 상원 (2014년)을 모두 통과해 오
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국제 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그에
걸맞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단
순히 금전적 배상만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
니라 피해자와 피해 당사국 국민의 마음을 이
해하기 위한 노력을 앞세워야 할 것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톤 미술관과 한국 설날의 만남

보스톤 미술관 음력 설날 축제
무료 입장,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 새벽 기자 = 보스톤 소재 보스톤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이 오는 2월4일(토) 오후로 네 번째 음력 설날 축제(Lunar New Year Celebration)를 개최한다. 한국, 중국 및 베트남 문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시아권 나라들의 전통적인 음력 설날 풍습을 소개한다. 미술관 전체가 무료로 개방되므로 설날 잔치와 미술관 관람을 병행할 수 있다.



보스톤 소재 보스톤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이 오는 2월4일(토) 오후로 네 번째 음력 설날 축제(Lunar New Year Celebration)를 개최한다

한국 관련 행사는 한미예술협회와 뉴잉글랜드한국학교가 협력하여 제공한다. 해마다 많은 관심을 받는 세배 시범(Saebae demonstration)은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김진아, 김희현 교사의 가족이 선보이게 된다.

세배 설명은 보스톤에서 '갤러리 봄(Gallery BOM)'을 운영하는 조연민씨가 맡았으며 관객들도 함께 참여해 세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연회 후에는 외국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한복 입어보기 순서가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태권도 시

범이 준비되어 있다.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씨와 피아니스트 체이스 모린(Chase Morrin)으로 구성된 듀오 Gapi도 공연한다.

다른 나라의 행사로는 많은 관객을 모으는 중국 여성 무용단의 화려한 사자춤이 올해에도 진행되며, 쿵후 시범도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복주머니 만들기, 프린트 메이킹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만들기 순서도 함께 진행되며, 베트남의 새해인 테트(Tet)에 관해 알아보는 원탁 토론 시간도 있다.

미술관 측에서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히 제작된 꽃꽂이들과 중국 송나라 미술품을 비롯한 신규 소장품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것과, 가능하다면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와서 미술관에서의 하루를 마음껏 즐길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미예술협회 김병국 회장은 "작년에는 당일 방문객 수가 무려 7,300명에 이르렀는데, 무료 입장이지만 혼잡을 피하려면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www.mfa.org의 스페셜 이벤트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더 킹(The King)', 보스톤 개봉 무료티켓 이벤트

'최순실 게이트' 판박이 영화 '더 킹', 미국서도 흥행 대박 이어갈까
정우성, 조인성, 류준열에 김이중까지 초호화 캐스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해 말부터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판박이이라 할 수 있는 영화 '더 킹(The King)'이 18일 한국 개봉에 이어, 미국에서도 1월말 개봉한다. 보스톤에서도 1월 27일 보스톤 커먼 AMC Lowes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더 킹'은 셸러리맨 검사 박태수(조인성)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실세 검사 한강식(정우성)을 만나 권력을 누리며 스스로 왕이 되려는 과정을 그린다. 정우성, 조인성, 류준열에 김이중까지 출연하는 초호화 캐스팅에 영화 속 일부 장면과 스토리 전개가 초대형 권력 스캔들 '최순실 게이트'를 떠올리게 해 개봉 전부터 줄곧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시나리오 쓸 때 신이 내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현실과의 싱크로율이 뛰어난 한재림 감독의 각본과 연출력 그리고 흥행 보증

캐스팅이 더해져 벌써부터 2017년 첫 번째 '1,000만 관객' 돌파 영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본, 연출을 담당한 한재림 감독은 '우아한 세계' '연애의 목적' '관상'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감독이다.

'더 킹'의 미국 쪽 배급사 관계자는 "1월 말에 미국은 물론 캐나다까지 약 30개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개봉 날짜와 구체적인 상영관은 추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스톤코리아는 영화 <더킹>의 보스톤 개봉과 관련 무료 티켓 이벤트를 개최한다. 더킹정우성 또는 더킹조인성 다섯글자로 5행시를 23일 오후 12시까지 댓글로 달아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중 8명을 선정해 무료티켓 2장을 증정한다. 당선자는 23일 오후 5시에 발표한다.

hsb@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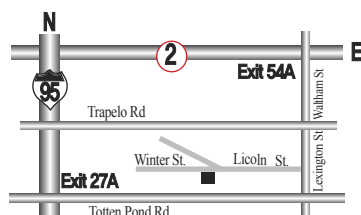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자 교수 슈베르트 독주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뛰어난 기교와 음악적 통찰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피아니스트 김정자 교수의 연주가 오는 1월 31일(화) 저녁 8시에 보스톤 컨서버토리의 솔리 홀(Sully Hall, 8 Fenway, Boston, MA)에서 열린다.

보스톤 컨서버토리의 피아노 마스터 시리즈의 일부로 개최되는 이 연주회의 프로그램은 모광 뮌치코, 클라비어 소곡, A단조 소나타 등이 포함된 슈베르트의 곡들이다.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김정자 교수는 1964년 영 콘서트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오디션(The Young Concert Artists International Audition)의 우승자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데뷔하였으며, 같은 해에 Kosciuszko Chopin Competition에서 우승하였다.

김교수의 뉴욕 데뷔 연주는 뉴욕 타임즈로부터 "뛰어난 연주, 생동감 있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공연"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보스톤 글로브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그녀의 연주에 대해 "마음을 사로잡는", "상상력의 대가", "더 높은 수준의 음악적 고취" 등의 호평을 보냈다.

김교수는 마사 베어드 록펠러 그랜트(Martha Baird Rockefeller Grant)



피아니스트 김정자 교수의 연주가 오는 1월 31일(화) 저녁 8시에 보스톤 컨서버토리의 솔리 홀(Sully Hall, 8 Fenway, Boston, MA)에서 열린다

를 수상해 프랑스,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를 순회 공연하였다. 미국에서는 카네기홀, 엘리스 텔리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필립스 갤러리, 조던홀, 이자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 머킨홀 등에서 연주하였다. 협연한 음악 단체로는 뉴욕 필하모닉, 볼티모어 심포니, 세인트 루이스 챔버 오케스트라, 보스톤 시빅 심포니, 서울 필하모닉, 체코 국립교향악단 등이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도 독주회를 가진

그녀는 지난 해에도 코리아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하며 지속적인 연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라흐마니노프, 라벨, 모차르트, 쇼팽의 작품을 녹음한 다수의 음반들이 출시되어 있으며, 1972년부터 꾸준히 보스톤 컨서버토리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다.

티켓은 일반 15불, 학생/시니어 10불이며 전화 (617) 912-9222에서 구매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웹툰작가 김차명 초청 한국역사 캠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3회 걸쳐 역사강연 캠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고 NE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찾아가는 역사문화캠프>가 1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다.

<초등 역사수업 디자인하기>의 저자이자 온라인상에서 그림 그리기 '참쌤'으로 유명한 김차명 경기도 정왕초등학교 교사를 초청해 학부모, 교사, 보조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2일간 3회에 걸쳐 강연을 갖는다.

그가 운영하는 <참쌤의 웹툰.영상공작> 블로그 (<http://chamssaem.tistory.com>)에는 한 달 평균 1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다. 웹툰과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학급경영 등에 필요한 시청각 자료, 5~10분 동영상 강의 등을 다운받을 수 있어 교사들이 주로 찾는다.

이번 역사문화캠프의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문의는 NE 재미한국학교협의회 (978.835.9168, 603.557.6644)에 할 수 있다.

행사 1: 대상 - 학부모, 보조교사, 교사

장소 - 밀알 한국학교(15 Alpha Road, Chelmsford, MA)

날짜 - Jan. 27, 2017 (9AM)

행사 2: 대상 - 학부모, 보조교사, 교사

장소 - 성요한 교회(2600 Mass Ave, Lexington, MA)

날짜 - Jan. 27, 2017 (5:30PM)

행사 3: 대상 - 4th Grade ~ 12th Grade

장소 - 다문화선교교회(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날짜 - Jan. 28, 2017 (9AM)

bostonkorean@hotmail.com



김차명 경기도 정왕초등학교 교사를 초청해 2일간 3회에 걸쳐 강연을 갖는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구정 프로모션>
1월 29일까지

지친 일상, 고된 살속에서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나를 버티게 하는 힘.

EVENT 1



홍삼추출액(30포) 구입시
10포 무료증정 **3+1**

EVENT 3

홍삼본 골드 (\$183)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FREE OFF

EVENT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FREE OFF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KGC Boston Brand Stor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 주문 **781-238-0303**

술 들고 음식점 가는 BYOB, 실효성 글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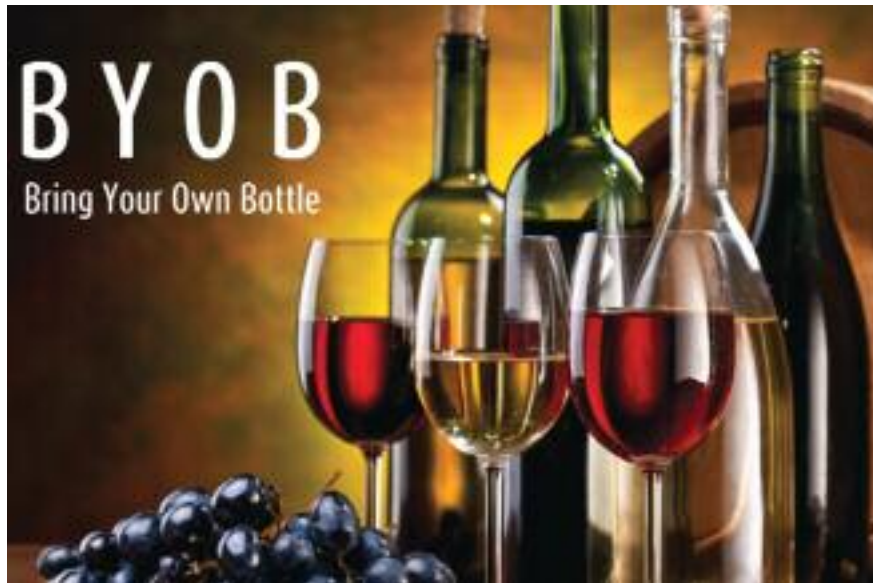
규제 까다로워 실시하는 음식점 적을 듯, 한인 음식점의 경우 조심스러운 반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올스톤 등 일부 보스톤지역 소규모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자신이 직접 술을 가져가 마실 수 있는 BYOB(bring-your-own-bottle) 허가를 발부하는 법안이 18일 발표됐다. 그러나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워 한인 업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스톤시 주류허가원은 18일 올스톤, 브라이튼을 비롯한 찰스타운, 도체스터, 이스트보스톤, 하이드파크, 패타맨, 자메이카플레인, 미션힐, 로슬린데일, 락스베리, 웨스트 락스베리 그리고 일부 사우스 보스톤의 소규모 식당들이 BYOB허가를 취득할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단지 30석 이하의 소규모 레스토랑이며 반드시 화이트 스태프들이 음식을 서빙하는 곳으로 400불을 내고 허가를 획득한 음식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음식점들은 라이어블리티 보험을 들어야 하며 소유주 또는 매니저 등이 주류허가원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BYOB손님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올스톤 소재 감자탕으로 유명한 한인 식당 한마루 한규만 대표는 “가장 붐비는 시기에 좌석 회전이 빨라야 되는데 술손님들이 버티면 오히려 힘들다는 점이 있으며 수수료도 부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크게 매력적인 것이



올스톤 등 일부 보스톤지역 소규모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자신이 직접 술을 가져가 마실 수 있는 BYOB(bring-your-own-bottle)허가를 발부하는 법안이 18일 발표됐다

아니다” 고 밝혔다. 또한 30석 이하면 너무 소규모라서 이 정도로 좌석을 줄일 커다란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보스톤 시에 이법을 제안한 미셸 우 보스톤 시의회 의장은 “이번 법안이 보스톤의 일부 음식점에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기쁘다” 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중국계 한 업주는 보스톤글로벌과 인터뷰에서 “모두가 이를 찬성하는데 왜이리 이 법안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

며 제한이 많은지 모르겠다” 며 불만을 토했다.

보스톤BYOB법은 2015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마틴 월시 시장이 서명해 발효됐지만 보스톤 주류허가원은 무려 1년이나 넘게 끌며 마침내 이 법안을 1월 18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실제적인 허가 발급은 올 3월 정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editor@bostonkorea.com



서강대 신년 동문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서강대 동문회가 설날 신년 모임을 갖는다. 1월 28일 토요일 정오 12시에 케임브리지 소재 지네스코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설날 모임에서는 점심식사를 함께 나누며 올해 계획 및 동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수범 동문회장은 “올해에도 설날을 맞아 신년 모임에 동문님들과 가족, 기타 중요한 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지난 가을에 새로 오신 동문들이 있어 올해는 평균나이가 젊어졌습니다. 혹시 주위에 알고 계신 동문이 있으면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 전했다.

참가하는 동문들은 연회비 \$100을 준비해야 한다. 포닥(Post-Doc)은 \$50, 학생은 무료다. 회비는 동문회 행사, 서강대 John P. Daly Scholarship 기부, 보스톤 한국 문화행사 찬조등에 사용된다.

동문회 관련 문의는 이수범 회장 (subomrhee@gmail.com)에게 할 수 있다.

일시: 1월 28일 (토) 정오 12시
장소: Genosco 회의실 45 Spinelli Place, Cambridge, MA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이중언어권 2세 맞춤형 역사퀴즈대회

알기쉽게 풀어준 역사 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중언어권 2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역사퀴즈 골든벨대회가 처음으로 시도됐다. 한글 사용이 비교적 쉬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골든벨 행사는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이중언어권 2세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는 처음이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1월 14일 토요일 한국인 3세 또는 이중언어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급 세종과정에서 맞춤형 역사퀴즈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이중언어권 자녀들이니만큼 일반 역사퀴즈골든벨대회와 차별화된 방식이었다는 것이 남일 교장의 설명이다.

대부분 가정에서 한글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설을 영어로 만들었다. 또 '흥미롭고 재미있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한다는 목표에 맞게 한국에 대한 상식과 문화, 그리고 중요한 인물에 관해서 묻는 문제들로 퀴즈를 진행했다. 이 대회를 위해 교사들은 학기 중반부터 체험학습 형식으로 이를 가르쳤다.

이번 역사퀴즈 행사의 준비를 맡은 류장한, 조진태 교사 및 김민정 세종과정 리더는 "초급 이상 수준의 학급을 대상으로 공부할 자료를 준 후 학기 중반에 총 4~5년 정도 강의를 진행하였고 암기식 수업이 아닌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고 밝혔다.

남일 교장은 "이중언어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새로운 한국 문화 & 역사골든벨>을 시작했는데 아주 효율적이고 재밌게 개최됐다. 앞으로도 역사퀴즈 대회를 통해 시

대와 중요역사인물은 물론 다양한 한국 문화 및 역사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1월 21일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대상으로 '옛날로 떠나는 역사 속 퀴즈 여행' 본선 대회를 개최하며 세배방과 다양한 민속놀이로 구성된 설날잔치를 갖고 겨울방학을 시작한다. 2017 학년도 봄학기는 오는 2월 25일부터 시작된다. 등록문의 및 교사지원은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 또는 남일 교장 (508-523-5389), ksneusa@verizon.net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중언어권 2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역사퀴즈 골든벨 대회가 처음으로 시도됐다

1월 21일 무료진료 및 독감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내과 및 치과진료, 건강상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는 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비롯해 내과 진료 그리고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내과는 진료 후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하고 치과는 검사 및 예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한

예약없이 환자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찰을 진행한다.

이날 진료에서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을 원하는 한인들은 아침을 굶고 와야 정확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더욱더 정확한 건강 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나 체내에

체지방검사도 받을 수 있다.

보스톤 새생활센터의 무료진료는 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진료를 원하는 한인들은 스톤햄 소재 보스톤새생활센터(4 Spring St., Stoneham, MA)를 방문하면 된다. 진료에 관한 문의는 송연호 보스톤 새생활센터대표(317-374-4786)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 단체장들 총영사 칭찬 한 목소리

▶▶1면에 이어서

심사위원단은 엄성준 총영사를 선정 한 사유로 "엄성준 총영사는 2016년에 개최된 한인 행사에 70회 이상 참석했다. 교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각 단체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부분을 직접 듣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온 엄 총영사는 미 주류사회에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를 적극 후원하고, 한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써왔다." 고 밝혔다.

또한 엄총영사는 "정치 인턴 후원사업, 차세대 리더 심포지엄의 후원을 통해 차세대 정체성 교육 및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영사 민원실 확장과 민원실 대기 순번표 발급 시행을 통해 민원 처리 효율을 제고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시행하는 민원서비스 연장근무도 교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는 점도 인정받았다.

엄총영사가 2014년 4월 부임과 동시에 던진 화두는 "변화와 창조" 였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처럼 들렸다. "보스톤 한인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해보고자 한다" 는 그의 말은 여전히 모호했다. 그러나 엄총영사는 행동으로 이를 이해시켰다. 그 이후 한인사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달려가 있는 엄총영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16년 8.15광복절 행사 때는 하루에 메인과 로드아일랜드주의 두 행사에 시차를 두고 참여기도 했다. 두 행사장은 차로 최소한 3-4시간 이상 운전해야 하는 거리였다.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문제에는 늘 뒷집만 쪼던 과거 총영사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한인 식당업주를 초청해 요식협회 구성을 제안하고 한인회관 문제와 관련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끌었다.

보스톤에 주재하는 세계 각국의 총영사들이 경제인들에게 각나라의 경제환경과 경제 장점을 소개해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는 지배인(GBANE)행사에도 한국소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다 국회의 지원 중단 압력으로 연구를 접게된 마크 바잉턴 하버드대 교수의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깊은 우려를 표했다.

엄총영사의 수상에 안병학 한인회 이사장은 "발로 뛰는 총영사상에 자격이 너무 넘친다. 활동에 비해 상이 적다고 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다. 보스톤 한인사회를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오히려 한인사회가 따라주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보스톤을 알리기 위해 발로 뛰는 사례에 대한 얘기가 자자하다. 특히 대한항공 보스톤 직항로 유치를 위해 한국에서 관계자를 직접 찾아다니는 등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현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다." 고 평했다.

엄총영사에 대한 한인사회의 단체장들의 평가는 안이사장의 말처럼 칭찬 일색이다. 엄총영사와 관련된 회의나 모임에 한번이라도 참여했던 한인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반응이었다.

일반 한인들의 경우 약간 온도차이가 있었다. 렉싱턴에 거주하는 김수한 씨는 "신문의 거의 모든 사진에서 (총영사들) 본 것 같다. 그만큼 많이 발로 뛰었다는 것이 아니냐" 며 대체로 총영사의 노력을 인정했다.

레딩에 거주하는 최석우 씨는 "사실 잘 모르겠다.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교환협정 체결 등 실제적인 혜택은 체감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기후변화 북극곰 아닌 바로 우리 한인에 위협

달이 저구에 가까이 다가와 슈퍼문 현상을 보이며 만조시 해수면이 상승해 바닷물에 잠겼던 보스톤 항구

2050년에는 보스톤 해수면 상승 5피트 가능성 50% 상회 폭염, 폭우, 홍수 극심한 기후 빈번 이미 위협은 시작 돼 상당수 언론 과학적 논의 치부 그러나 실제론 우리 일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무 더웠던 지난 2016년 여름, 90도가 넘는 날이 22일 이었다. 연평균 11일에 비해 두배나 되는 수치다 . 불과 2년전 보스톤 사상 한시준 최다폭설 기록 을 목격했다. 폭설과 흑서, 흑한이 자주 우리 곁

을 찾아오면서 등장하는 용어는 바로 기후변화 다. 극심한 기후일 때만 잠시 우려했다 우리들 기억에서 사라지는 기상이변 현상이 머지않은 장래에는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 한다.



해수면이 7피트 상승했을 때 보스톤과 케임브리지 상당부분이 바다에 잠긴다. 다행히 울스턴 지역은 잠기지 않는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보스톤 지역의 극심 한 기후변화와 더불어 4피트 이상 해수위 상승 이 최소 한차례 이상 일어날 확률이 당장 2020년 만 해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피해는 저소득 층과 이민자들에게 가장 극심하게 전달될 것이 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클라이밋센트럴 (ClimateCentral)에 따르면 2030년에는 4피트 이상의 해수위 상승이 1년에 한 번 이상 일어날 확률이 60%가 넘어서며, 2050년에는 매년 한차 례 이상 4피트 이상의 바닷물이 범람하게 된다(그림1)

4피트 해수위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이 보스톤 을 덮칠 경우, 51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 해수위가 5피트였을 경우 무려 5만7천명의 주민의 거주지역이 잠기 며, 6피트였을 경우 10만명의 거주지역이 물에 잠긴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질로우(Zillow)가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6피트의 해수면 상승이 일 어났을 경우 보스톤 주택전체 17.8%에 해당하 는 21,829 여채의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게 된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환경대학 기후변화학 폴 커쉬 교수가 스톰이 닥칠때 강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산 피해액은 무려 245억달러 규모다. 주택피 해 규모에 다른 지하철, 터널 침수, 도로붕괴, 단 전단수 등 사회 간접자본 피해는 보스톤 지역 삶 에 극심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환경대학 기후변화학 교수인 폴 커쉬 박사는 “비교적 2030년까지는 지금의 해수면과 큰 차 ▶▶9면으로 계속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 아카데미는 혁신적인 메탈로 디자인과 프렌드십 에너지를 전문 취급합니다.

전문 수장품 판매업자 자격 (10시간 수업)
"성업 중인 많은 네일 샵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MA Best Nail School
5월 10일 - 11일
> 저렴한 Tuition
> MA주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artwithcatherine.com
주말 미술교실을 방문할지 망설이셨던 분께 손수 미술에 대한 개념을 넓히고 기쁨을 배워 실용성상을 도와드립니다. 예술을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스터제작, 제작
월성 및 월간비 개별
수업 3시간/주 (대중 수업 선택)
(단체 수업: 미술교과 수업학과 등, Enrichment Plus Art, 등)

78 Millis Street #103, Norwood, MA 01901
bena76@gmail.com **781.729.8868**

현금 대출

- 비지니스 오너를 위한 현금대출 (Money for business owners only)
- 은행 잔고 증명 불필요 (No bank statement need)
- 신용조회 불필요 (No credit check)
- 24시간내 승인 (Easy and fast approval)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화하세요!
617.834.8183

▶▶8면에 이어서

이는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달라져 2100년에는 해수위가 7-9피트 가량 상승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9월 보스톤 다운타운의 뉴아메리카 미디어의 기자 간담회에서 커윈 박사는 이스트보스톤의 경우를 예로 들며 "침수 지역에 이민자와 가난한 계층에 가장 많은 타격을 줄 것" 으로 내다봤다. 기후변화가 결코 과학적 차원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보스톤 시는 2016년 12월 8일 시청에서 보스톤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인 Climate Ready Boston 기자회견을 열고 보스톤 시의 기후변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스톤시에서 주목한 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홍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취약지역은 찰스타운, 찰스강, 도체스터, 다운타운, 이스트보스톤, 락스베리, 사우스보스톤, 사우스 엔드 등이다. 특히 홍수가 닥치게 되면 93번도로, 칼라한 터널, 맥클레렌하이웨이 (28번도로), 90번 테드윌리엄스터널, 모리시블러바드, 스토로우 드라이브, 트레몬트 스트리트 등의 도로가 잠기게 된다.

한인들의 상가가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 올스톤의 경우 찰스강변쪽을 제외하고는 실제적 침수피해는 입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스톤 일대와 케임브리지 일대가 침수됨으로써 사회간접자본과 재산 피해 등은 고스란히 한인사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렉싱턴 거주 정성환 씨는 "최근 무한 도전에

서 캐나다의 북극곰이 얼음이 얼지 않아 북극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프로를 봤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다. 한인사회도 이게 먼 미래라 생각지 말고 나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왜 기후변화가 생기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단하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개스와 이산화 탄소 등이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온도 상승은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녹이면서 해수면 상승을 유도한다.

온실개스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매연, 교통, 그리고 냉난방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발생한다. 과거에는 단지 이론상의 것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현상은 얼마전 발생했던 슈퍼문으로 인해 보스톤 하버가 물에 잠겼던 사건이다.

그외에도 만조시 조금만 바람이 심하거나 폭풍우가 일면 거리로 바닷물이 파고드는 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다. 더구나 열어야 될 얼음이 얼지 않아 북극곰이 북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습은 지금이라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경고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는 높은 온실가스 방출, 중간단계 온실가스 방출, 그리고 낮은 온실가스 방출 등 3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향후 예측치가 달라진다. 높은 온실가스 방출 정도는 현재와 같은 정도로 개



마티 월시 보스톤시장의 보스톤 시의 기후변화 준비 대책인 Climate Ready Boston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

스를 방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막대해진다. 파괴기후변화 협약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파기 될 경우 이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중간단계 온실가스 방출은 2050년까지 개스 방출이 지금보다 늘지 않으며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것을 가정한 것이며, 낮은단계는 2050년까지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개스를 줄이고 2080년에는 거의 0에 가깝게 개스방출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펄 커윈 박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출 수는 있다" 고 밝혔다. 즉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스방출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커윈 박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온실 가스를 줄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진다" 고 강조했다.

문제는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는 것이 상당부

분 정치의 영역이란 점이다.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한 파괴기후변화 협약도 트럼프의 당선 이후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중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도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는 기후변화가 날조됐거나 음모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온실가스 방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해수면 상승이 가까운 장래에 닥쳐올 재난이며 지금의 선택이 그 시기와 피해규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방 정부의 정치적인 논의와 독립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보스톤 시는 그 대표적인 지자체 중의 하나다.

보스톤시는 12월 8일 발표에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을 새롭게 발표하며 각 커뮤니티에 이를 알려 준비를 확대시킬 전략이다. 또한 해안에 방파벽을 쌓고 홍수에 안전한 하부구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건설되는 건물에는 해수면 상승을 고려한 건축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스톤시는 총 11단계의 기후변화 대책 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editor@bostonkorea.com



온실개스를 현재 상태의 규제로 계속 두었을 때 보스톤 침수 지역 피해규모와 적극적으로 줄였을 때의 피해규모의 차이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두통
-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불면증
- 비염, 천식, 알레르기, 만성 스트레스 관리
-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임신, 갱년기, 여성성 호르몬, 비뇨기 장애
-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 만성 질환 예방
- 모든 연령대의 환자, 어린이, 노인
- 모든 종류의 건강 문제를 위한 맞춤형 치료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A주 알코올 규제 법안 대대적 개정 준비

오래되고 부정확한 법 현실 적용 어려워
재무부 주도 법안 개정 위한 특별팀 구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알코올 음료와 관련한 규제 법안을 총체적으로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데보라 골드버그 매사추세츠 재무장관은 금주법 이후 조금씩만 수정되어 왔던 주류 규제 법안을 21세기에 걸맞게 총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다.

골드버그 장관은 특정 이슈에 한정 짓지 않고 주류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고려해 본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재무부의 특별팀에는 정치 및 입법 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술집, 주류 유통회사, 주류 제조회사 등 알코올 비즈니스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특별팀은 주류 업계 관계자들과 1월 말에 회의를 갖고 주요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특별팀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주류 판매점의 영업 시간 연장, 각 도시와 타운별 주류 라이선스의 개수 확대, 맥주 유통의 간소화, 일반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에 주류를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방안 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의 주류 법안은 법 적용이 난해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골드버그 장관은 “우리에게는 (주류 규제) 법이 있지만 현대적이지 않다. 오늘날 알코올 음료 비즈니스의 실제 모습과 동떨어져 있다” 며 “우리는 이를 검토하

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오랜 시간 동안 주류 규제 법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저해 왔다. 관련 업계의 엄청난 로비 공세 때문이다.

정치권과 주류 업계 모두 현재 법안이 복잡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 먼저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알코올 규제 법안의 대대적인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에버소스 전기료 인상 계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에버소스 에너지(Eversource Energy)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 140만명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에버소스는 2012년에 노스이스트 유틸리티와 합병된 이후 지금까지 전기 요금을 동결해왔다.

매사추세츠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7%, 한 달에 550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할 때 평균 8.45달러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은 약 10%, 한 달 평균 11.64달러의 전기 요금

이 인상될 수 있다고 에버소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에버소스는 이번 전기 요금 인상이 매사추세츠에서 발생하고 있는 약 90만 달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신 기술을 도입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에버소스의 요금 인상안은 매사추세츠 주 정부에 접수되어 공공 요금 관리 부서와 법무부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가고는 북, 서울설렁탕의 미진, 국밥,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OUL
158 Cambridge St, Boston
617.572.8888
SeoulFoxBar.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HBO, FOX, CNN, ESPN, etc.

주지사, 공화당의회에 오바마케어 핵심조항 유지 요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공화)가 현재 오바마 케어의 일부 핵심조항을 유지해달라고 의회에 1월 12일 서면으로 요구했다.

하원 원내대표 케빈 맥카시 의원(공화)에게 보낸 서한에서 베이커 주지사는 오바마 케어폐지와 관련된 변화가 점진적이어야 하며 각 주가 현재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남아 있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매사추세츠에 도움이 되는 오바마 케어를 보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 책임은 매사추세츠의 (건강보험)체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로비하고 적극옹호하는 것" 이라고 그는 말했다.

의료보험업계 대표였던 그는 거의 모든 매사추세츠 주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연방 보조금의 삭감 등 매사추세츠 주의 건강보험 안전망을 뒤흔드는 어떠한 변화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이커 주지사는 건강보험이 일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의 오바마케어 일부를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직장건강보험이 가능함에도 오바마케어를 이용하는 등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실시이래 약 50만명의 직장인들은 자신들의 직장 건강보험에서 오바마케어로 전환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이것이 주 건강보험 지출을 늘려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6년 미트롬니가 서명했던 건강보험안에서 대부분의 매사추세츠 사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토록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가 시작되면서 일부 소득요건이 맞는 근로자들은 직장 의료보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오바마케어의 세금보조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게 됐다.

베이커의 지적에 따르면 2012년 이래 직장보조 건강보험은 7% 줄었으며 메이케이드 등록자들 또한 비슷한 숫자로 늘어 현재 전체 주민의 30%가 이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베이커 행정부는 직원들에게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체에 벌금을 부과해 이를 통해 치솟는 메이케이드 비용을 감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사업체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베이커 주지사는 현재 공화당의회 중진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대안의 문제점을 지

적했다. 기존 환자들 보험을 위한 고위험군 보험은 성공한 적이 없었다며 우려했다. 또한 메이케이드의 달러대달러 매치가 아닌 주정부에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방법도 결국은 연방보조의 축소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최근들어 매사추세츠는 치솟는 메이케이드비용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400억달러의 주 예산의 40%를 매사추세츠 버전 메이케이드인 매스헬스에 쏟아붓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매사추세츠주는 오바마케어로 약 50만명의 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 이중 30만명은 메이케이드에 가입했으며 20만명은 세금크레딧을 받고 있다.

공화당원인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2014년 민주당 텃밭인 매사추세츠에서 아주 근소한 차로 승리했으며 2018년 재선에 나가게 된다. 오바마케어 문제는 그의 재선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hsb@bostonkorea.com



찰리 베이커 주지사

베이커, 건강보험 제공안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벌금 부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치솟는 건강보험 지출의 고삐를 잡기 위해 일련의 보험 개혁안을 17일 제안했다. 골자는 건강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병원에 지불하는 건강보험료 수가를 제한한다는 방안이다.

베이커 행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2006년 매사추세츠의 이정표적인 건강보험법 즉 롬니케어의 골자를 부활 시킨 것이다. 모든 풀타임 10명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병원의 보험 수가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병원 수수료를 없앨 계획이다.

이 같은 베이커 주지사의 1월 17일 제안은 저소득자를 위한 보험 매스헬스(메이케이드의 매사추세츠 버전)의 치솟는 비용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의도다. 즉 매사추세츠주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 매스헬스에는 총 1백90만명이 가입해 있으며 연 주정부 예산의 40%에 달하는 150억달러의 비용이 사용된다.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10인 이상 풀타임 근로자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명당 2천불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과거 롬니케어를 겪었던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조치다. 베이커 행정부는 이 벌

금으로 약 3억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불공정한 과세라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상공인연합 존 허스트 회장은 이 벌금이 불공정하게 일부 소규모 사업체에 부담을 줄것이라며 반대했다. 대기업들의 경우 면제되는 다른 일부 규제에 충분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스트 회장은 병원비용의 한도를 두는 것은 비용증대를 막는 것이겠지만 더 나아가 건강보험 수가를 낮춰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입장이 다르다. 매사추세츠 병원협회 고위관계자는 병원수가 제한에 반대하며 점점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병원수가를 오히려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업계는 병원수가 감면에 대한영의 뜻을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의 건강보험 개선 계획은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케어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발표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원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베이커는 12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베이커 주지사는 메이케이드 관련 연방정부가 매사추세츠 주정부 보조를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hsb@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폰도 오픈 하우스
(1월 20일 일요일 11시-12시 30분)

Townhouse in Acton

1,390 SF (finished basement not included),
2 Beds, 4 Baths, 1 Garage,
1 Office space, Loft, Open plan

ASKING: \$525,000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 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e-mail) thepeterginateam@gmail.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트럼프號 인준 진통에 내각 절반만 갖춰진 상태로 출범

89년 부시 이후 가장 더딘 인준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새 내각의 출범 준비가 순탄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일 취임식에서 트럼프 정부 초대 내각은 절반만 정식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단 한 부처를 제외하고 모든 인준을 마친 뒤 취임한 것과 크게 다른 모양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국방부·교육부 등 트럼프 초대 내각 의회 인준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20일 취임식까지 인준이 마무리된 데도 내각은 절반밖에 갖춰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취임 이래 가장 인준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다.

게다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점을 감안하면 인준 속도가 무척 느린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치 매크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0일 취임식 전까지 미 안보 사령탑인 국방부·CIA·국토안보부의 수장 3명에 대한 인준을 완료하는 것을 두고 논의 중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후보도 한때 낙마가 예상됐으나 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입증해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외에 일레인 차오 교통 장관 내정자,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 장관 지명자 등 논쟁 여지가 적은 이들에 대한 인준도 마무리 될 전망이다. 톰 프라이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취임식 이후 청문회가 진행된다.

그러나 도덕적 결함이나 부패 혐의 등으로 인준 표결에서 부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도 적지 않다.

톰 프라이어 보건복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동장관 내정자 앤드류 푸즈더는 과거 가정 폭력 혐의가 불거진 상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는 원웨스트은행 재직 당시 무차별적으로 주택 압류를 벌인 것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

여기에 역대 최대 자산가들이 모인 트럼프 내각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은 트럼프의 내정자 중 수십억 달러 자산가들이 대거 포함돼 '이해충돌'을 따지는 작업이 길어져 인준 과정이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프라이어, 푸즈더, 므누신 내정자들의 인준을 두고 끝까지 싸울 것을 고집하고 있어 향후 의회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측근으로 분류되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프라이어와 푸즈더를 "가장 큰 도전"으로 꼽으면서도 결국엔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준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사 진행을 두고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18일 디보스 교육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질의 응답 시간의 의원당 5분으로 제한돼 민주당측의 큰 반발이 불거졌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비슷한 청문회가 또 다시 생길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다른 후보들에 대한 인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25~27일 공동 연례 연수회에 참석하게 돼 인준 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yjw@news1.kr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벤티 디보스 교육장관 내정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떠나는 오바마, 지지율이 무려 60% 취임 첫해 이후 최고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떠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첫해인 지난 200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미국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높은 점수를 매겼으며 앞으로 그를 그리워 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발표된 미국 CNN방송-ORC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기록하며 집권 첫해인 지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역대 대통령들의 1월 퇴임 직전 지지율과 비교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훌륭한 편에 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선 전임자는 빌 클린턴(66%)과 로널드 레이건(64%) 전 대통령뿐이었다.

아울러 미국인 65%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성공적'이었다

고 답했다. 이 가운데 49%는 그 이유로 상황적 요인이 아닌 오바마 대통령 개인의 인품을 들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greatest)는 응답은 25%였는데, 이는 최근 전임 대통령들이 받은 응답 비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앞서 레이건(11%), 클린턴(10%), 조지 H.W. 부시(5%) 전 대통령은 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23%는 오바마 대통령을 '형편없다'(poor)고 평가, 확연한 온도차가 확인됐다. 전임자들의 경우 이 응답은 조지 W. 부시(40%), 클린턴(24%), H.W. 부시(15%), 레이건(14%) 순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면 '그리워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58%, '떠나서 기쁘다'고 한 비율은 41%를 기록했다.

icef08@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857.600.6755

Century 21

주책 | 콘도 | 커머셜
성실한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HAPPY HAPPY동상

617.248.3131 Happydolls@gmail.com

美공화 "오바마케어 폐지 속도조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에 맞춰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폐기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 오바마케어 폐기 '감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은 현재 의회가 추진 중인 '오바마케어 폐기' 예산위 조정지침 작성 마감시한을 기존 1월 27일에서 3월 3일로 늦추는 개정 결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 제출을 주도한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메인)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반대 측 의견 수렴없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마감 연장 요구는 관철될 가능성이 낮지만 CNN은 이번 개정안 제출이 '오바마케어 폐지 이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들 의원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일 즉시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행정명령을 발효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최근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해 없이 오바마케어를 빠르게 무력화할 수 있는 상원 예산위 조정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 같이 거침 없는 움직임이 자칫 대안 없는 파괴로 이어지며 오히려 건강보험 체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6세 이하 청소년들이 부모의 건강보험을 대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오바마케어의 주요 법 조항들은 그 보장 범위가

2000만~2300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빠른 폐기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이들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하원에 속한 온건 성향의 공화당원들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향해 오바마케어 대체가 반드시 폐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찰리 텐트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의회의 첫 조치인 소위 '폐기 결의안'이 지난 주 너무 빨리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텐트 의원은 "오바마케어 대체가 폐지와 동시에, 또는 최대한 동시에 가깝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건강보험을 보장 받고 있는 국민들의

보험 적용 범위에 틈새가 생길 수 있다. 보험 시장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텐트 의원은 이러한 우려 탓에 자신을 포함한 공화당 하원의원 9명이 지난주 결의안 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은 지난 13일 향후 오바마케어 폐지를 예산위 조정지침을 통해 수행하며 상원 소속 4개 위원회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줄이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라이언 의장은 이것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개시하는 "절차적 투표"라고 설명했다.

icef08@news1.kr



트럼프 취임식 준비가 한창인 미국회의사당

투자 전설 빌 밀러 "아마존 강세 전망 트위터는 글썽"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주가는 지난해 40% 이상 올랐다. 전설적인 투자자인 빌 밀러 LMM 회장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아마존 주가가 계속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18일 미국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밝혔다.

미국의 소매업계는 총 5조달러(약 5900조원) 규모인데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3830억달러(약 450조원) 수준이라며 밀러 회장은 아마존의 시총이 언젠가는 1조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밀러 회장은 "아마존이 하고 있는 사업의 측정 가능한 규모는 거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에게 아마존웹서비스(AWS) 부문의 시장 규모가 '수조 달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WS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아마존이 투자 사이클의 고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일각의 지적은 아마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아마존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으며,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드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투자에 속도를 낸다고 전했다.

밀러 회장은 트위터에도 투자하고 있다. 그는 트위터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으며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트위터가 소셜 광고 영역에서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위터가 약간 고군분투하고 있다. 나는 트위터가 매우 가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분석했다.

hemingway@news1.kr

국제유가 약 3% 급락...달러 강세 + 美 산유량 증가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18일 국제 유가가 3% 가까이 급락했다.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기록하고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유가를 최저치로 끌어내렸다.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는 2.7% 하락한 배럴당 51.08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2.8% 내린 배럴

당 53.92달러에 장을 마쳤다. 두 유종 모두 지난 10일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날 나온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보고서는 올해 원유 과잉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감소로 인한 유가 상승이 결국 셰일오일 시추를 늘려 미국의 원유 생산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OPEC과 비OPEC 국가간 역사적인 협력과 함께 경제여건 개선을 상징하는 통화 정책 정상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원유 시장에 필요한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OPEC 비회원국들의 감산에 대해 "초기의 보고들은 약속된 생산량 조정 이행에 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

여했다"고 덧붙였다.

OPEC은 비회원국들의 올해 일일 생산량 증가폭 전망치를 12만배럴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미국만 놓고 보서는 올해 생산량 증가폭이 23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상향조정했다.

달러는 반등해 유가를 압박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0.95% 상승한 101.24까지 올랐다.

acenes@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톤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 파방돌이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성곡 638-4 102동 파방돌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파방돌 공장 전경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가격인하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넓기드문 현명통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8,900
 2가구 세대가 1호, 총 수납 약 16,000,
 대지 면적 8000 sq.ft, 1970s 80764



Newton \$1,300,000
 271구세부, 연수\$104,900, 대지면적4200sq ft,
 1970년대 양대 1호 2호, 파방돌이
 팔로하기 좋은 위치 7000ft, 보스톤에서



Newton \$1,299,000
 2015년 새집, 최고 학교, 부가시설 6067sq ft,
 대지면적 16090 sq ft, 방7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859,000
 2015년 새집, 방5개, 화장실 2.5개,
 부가 시설 2000sq ft, 대지 면적 4770 sq ft,
 H road 상점 근방.



Boston Fenway \$ 984,000
 방 1개, 화장실1개, 부가시설 479sq ft,
 4000 sq ft 2015년 새집, 1911 water(보)
 36500 평년지 대역, T station, 공원, 박물관.



Woburn \$1,360,000
 2015년 새집 최고 학교, 방5개 화장실 4.5개,
 부가시설 4000sq ft, 대지면적 17040sq ft,
 매우 바쁜 최고의 학교, 근방에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oburn, MA

삼성 벽에 막혀 특검 '주춤'...김기춘 영장발부에 '사활'

영장기각 때 수사동력 급락... "자신 있으니 청구"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뒷선으로 의심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을 상대로 영장발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개시 이후 블랙리스트 문건과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자들을 줄줄이 구속시키며 파죽지세로 내달려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핵심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주춤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등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한 수혜가

사실상 이 부회장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다. 하지만 대가성 입증에 자신을 보였던 특검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뇌물죄 입증논리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재청구를 망설이며 고심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할 지라도 영장발부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블랙리스트'는 진보적인 정치성향

을 갖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건으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외에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치했다는 의혹,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이른바 '정윤희 문건' 유출과 관련한 검찰수사 무마 의혹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 조 장관은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된다.

'삼성특혜' 의혹이 이 부회장에서 막혀 주춤하면서 특검이 주력 중인 블랙리스트 수사 칼날도 무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대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수십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한 '범꾸라지' 김 전 실장인데다, 최근에는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전 실장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동력이 급격히 사그라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이번 영장발부로 일거에 쇄신하겠다는 각오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구속 여부는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판가

름날 전망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막판 점검에 여념이 없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 판결 전이기 때문에 말하긴 그렇다"면서도 "자신이 없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onki@news1.kr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 주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유감... 흔들림 없이 수사"

박영수 주재 긴급회의 소집...영장재청구 두고 고심

(서울=뉴스1) 심언기, 이후민, 최동순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폭풍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중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영장 기각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언급한 뒤 브리핑을 마쳤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등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줬다고 보고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3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

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 박 특검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 오전 7시부터 4명의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과 함께 향후 삼성 특혜 수사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며 박 대통령 뇌물수수 수사에 차질을 빚게된 특검은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기소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할 지라도 영장발부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onki@news1.kr

이재용 구속영장기각, 차 탄핵심판에 영향주나?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겨냥한 영장청구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다.

뇌물혐의는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사유 가운데 하나다. 뇌물죄는 '대항범(對向犯)'으로 준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시에 처벌 받는 범죄다. 즉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가 입증되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도 입증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뇌물혐의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 또는 헌법 위반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파면여부 결정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모든 소추사유가 인정돼야 파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파디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용 영장기각은 입증부족 때문" ... "차 탄핵심판에 영향 있을 듯"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쉽게 말하면 이 부회장이 돈을 준 것까지는 사실로 드러났지만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특검수사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한파디로 정리하면 특검이 뇌물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뇌물죄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로 평가된다.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내기도 어려울뿐더러 '대가성'도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회장의 경우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까지는 드러났지만 박 대통령이 대가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이 부회장이 대가를 요구했는지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탄핵심판도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의 일종이므로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 가운데 뇌물 혐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추사유 입증에 난항이 전망된다.

우리 현재는 대통령의 파면사유를 단순한 법률 또는 헌법 위반이 아

닌 '중대한 법률 또는 헌법위반'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법률위반 혐의 가운데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뇌물'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탄핵심판 심리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탄핵소추 사유 모두 인정돼야 파면되는 것 아냐

탄핵심판은 피소추대상의 행위에 '파면할 만한' 위법 또는 위헌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린다. 즉 탄핵소추 사유가 하나하나가 모두 입증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국회가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유는 총 13가지다. 즉 뇌물혐의 외에도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많다는 얘기다. 또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부회장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된 것이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조의연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사유에서 굳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정변경의 여지를 남겨둔 것 또한 앞으로 이 부회장의 신병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jurist@news1.kr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JAN. 20 - JAN 26, 2017

BACON CHEESE RICE CAKE

Tangy, chewy, sweet and spicy... Let's get started.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H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맛있는 베이컨 속 쫄깃한 떡, 매콤 달콤한 양념장과 담백한 치즈의 조화~! 누구나 좋아하는 H마트표 베이컨 치즈 떡꼬치!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 NATURE'S Tofu 자연달걀 두부 Soft/Firm - 14oz/pkg **\$1.08**
- Purple Sweet Potato 보라색 고구마 **\$1.99**
-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3.99**
- Kabocha 단호박 **\$0.88**
- Gobo 우엉 **\$1.99**
-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88**
-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 Lotus Root 연근 **\$1.88**
-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3cwt/box **\$7.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Chicken Tenderloin 닭안심 **\$2.59**
- Pork Spare Ribs for BBQ 바베크용 돼지고기 **\$2.99**
- Pasta Bone 냉동 도끼니 **\$1.29**
- Beef Flank Steak 앞치마양지 (육계장) **\$6.99**
- Sliced Pork Single Rib BBQ 바베크용 냉동 삼겹살 **\$4.99**
- Marinated Tenderiz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버릴 냉동 스테이크 **\$6.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PAUL P. LAZZA Wild Shell-on Headless White Shrimp 치열산(북미)치아나 머리없는 흰새우 20-30 1/1 lb. pkg. **\$7.99**
- TONGTONGBAY Seafood Mix 동동버 해물모듬 1lb/pkg **\$3.99**
- Conch 소라살 **\$8.99**
- SUHYUP Alaska Pollock Fillet 수협 부침용 통타살 14.1oz/pkg **\$4.99**
- Premium Salted Yellow Croaker 프리미엄 자반 참조기 330 / 350/10 lbs. - box **\$59.99**
- Cod Fillet 대구 전감 **\$5.99**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Kyu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도 40 lb. **\$25.99**
- 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oz x 16ea/box **\$9.99**
- Green Tea Seasoned Cakes **\$9.99**
- DONGSUI Maxim Coffee Mix **\$9.99**

HELLO HOME Hello Home Recipe Contest!

HELLO HOME와 함께하는 나의 레시피 이벤트

최선을 다해 나의 레시피를 올리면 대박 상품이 내거려!!!

Please visit HelloHome.com for detailed information.

- 호사쿠 사누키 우동 HOSAKU Sanuki Udon 8.4oz x 5ea/pkg **\$3.99**
- CHUNGJUNGONE Sunshing Soybean Paste 청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8.99**
- SHIPAKU 100% Pure Sesame Oil 시라기유 **\$9.99**
- ESSENCE Grape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4.99**
- CHICKEN COOKED WHITE RICE w/ Soybean Paste Gimbap **\$2.99**
- CHUNGJUNGONE Authentic Italy Spaghetti 청강원 이탈리아 전통 스파게티 **\$0.99**
- 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2.99**
- 해운면 만두 Haeundae Dumpling All varieties 2.66 lb. **\$4.99**
- 롯데 페퍼로 LOTTE Pepper Original/Ward - 4.5oz - 6 ea/box **\$2.99**
- SCOTT Extra Soft Bathroom Tissue 스코트 화장지 12roll/pkg **\$4.99**
- HAOREUM Citron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4.99**
- SHINGH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핑그레 바나나맛 우유 6.7oz x 6ea/pkg **\$4.99**
- HELLO Travel Pot **\$19.99**
- KOTO Rice Cooker 고토 전기 밥솥 13cvt/box **\$24.99**
- CHOICE L Bleaching Laundry Soap **\$0.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size,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prices exclude special order major credit cards. www.hmart.com HAVIT BURLINGTON STORE: 43 W. Middle Street,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020 / STORE HOURS: Sun - Thu 10am - 9pm / Fri - Sat 10am - 10pm

시민들 "나라 위에 삼성" vs "삼성 잘못되면 나라 망해"

"뇌물 명확한데 법이 또 재벌 봐주기"...맹비난
"삼성 때문에 먹고 사는 국민 많은데"...신중론

(서울=뉴스1) 사건팀 = 시민들은 19일 전날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재벌 봐주기" "대통령 위에 삼성이 있다"고 냉소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그간 경영권 승계, 정치권력에 대한 뇌물 등 각종 편법을 일삼은 재벌을 향한 불편한 정서가 드러났다.

다만 이 부회장의 구속은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 이란 인식과 함께 법원이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했을 것 이란 의견도 많았다.

이정현씨(27·여)는 "설마 했는데 정말 기각돼서 이 나라는 안되겠다" 했다"며 "이 시국까지 재벌 봐주기를 하는 걸 보니 국민들이 정말 우스워보 이나 보다. 국민들에게 또한번 국가를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이씨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 이란 세간의 주장을 향해 "총수 한명을 구속시켰다"고 말하는 기업과 나라라면, 그냥 그대로 망해도 된다"며 "(이재용 구속으로 삼성과 나라경제가) 잠깐 어려워질 수

있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욱씨(25)는 영장을 심사한 조 의연 판사에 대해 "원리원칙이 확실한 판사라고 해서 믿었는데 실망스럽다"면서 "(구속 기각 소식을 듣고) 판사가 삼성에 가겠구나. 100억원은 받겠구나" 생각했다"고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영등포구청 앞에서 만난 회사원 문대석씨(41)는 "우리나라 '넘버원' 재벌 총수가 순순히 구속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돼 씁쓸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구로구에서 야쿠르트 카트를 끄는 최경애씨(54·여)는 "이건 누가 봐도 봐준 것이다. 이재용씨가 일반인이라도 구속이 안됐을까.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원생 박동화씨(28)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먹힌 것 같다. 여론전 싸움이라 생각했는데 '구속은 너 무하다'는 삼성 여론이 꽤 먹혀든 것 같다"면서 "재벌만은 봐주자는 희망 없는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일부 시민들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430억의 자금을 뇌물로 보면서도 총수 구속은 다른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자영업자 정상용씨(38)는 "우리나라가 재벌들이 제대로 벌을 받는 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뇌물을 준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기업이다. 총수가 잡혀들어가면 삼성 주가도 폭락하고, 그럼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진다. 잘못된 대가는 치르되 리스크는 최소로 해야한다"고 했다.

박상영씨(51) 역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재벌 봐주기도 맞는데 나라 경제를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국민 정서가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거라고 해도 이재용은 삼성이고, 삼성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이라고 두둔했다. 박씨는 "판사도 부담이 많이 되지 않았겠나. 이재용을 구속시키면 매장당할 것이 어떻게 안 무섭겠나. 대통령 보다 센 것이 삼성"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법원의 판단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종로5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씨(52·여)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기각이 맞다"고 했다. 이씨는 "국민정서상으로 잡아 넣어야 할 것 같

만 나라 경제가 위태롭다. 이재용이 구속되면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들어갈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망한다. 삼성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60대 남성도 "재벌 봐주기는 무슨 재벌 봐주기냐. 삼성이 (최순실 등에게 준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지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이번 수사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

며 박영수 특별검찰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서울 중랑구민 김용태씨(53)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것은 당연히 뇌물이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될 줄 알았다"며 "그래도 특검이 잘 하고 있으니 칼을 뽑은 만큼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작구에 사는 대학원생 하모씨(30)는 "특검 수사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이다. 이재용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최순실이 가장 중요하니 앞으로 대응을 잘 해주었으면 한다"고 했고, 전남 여수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정석재씨(54)는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해서 결국 구속될 것이다. 이재용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했다.

chacha@news1.kr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유성엽 같은 사람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됐다"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유성엽 의원 같은 사람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의 발언(정읍·고창)에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퇴진 정읍시민행동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농단의 공범자인 재벌을 옹호하는 유성엽 의원의 발언에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인 정읍시민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 의원의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유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을 탄핵심판으로 이끌어낸 촛불 민심을 우롱한 것이며,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피해받은 서민의 삶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유성엽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구속수사 재판 반대합니다'란 글을 올렸다. 그는 '경제도 매우 안좋은데 깊이 숙고합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집회가 정

읍에서도 매주 수백명이 참여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인 정읍시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즉각 사죄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의 (이 부회장 구속반대)발언은 추운 겨울 광장에 나와 매서운 바람에도 촛불을 들고 새로운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강그리 무시하는 행태"라며 "박근혜와 삼성의 커넥션이 분명한 상황에서 유 의원의 구속수사 반대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오늘(19일) 새벽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바로 유성엽 의원처럼 경제 운운하며 구속을 반대한다는 여론몰이를 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유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 현수막 게첨, 토요일 촛불집회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고심중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아침 일찍부터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는 것이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은 박 대통령 뇌물수수 수사를 위해 특검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길목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할 지라도 영장발부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특검은 향후 대책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 등은 이날 오전 7시전부터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동전의 양면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특검은 기존 검찰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셈이 된다. 앞서 특수본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강요'죄를 적용했고, 대기업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했다. 특검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인 것이다.

다만 특검이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다고 할 지라도 추가적인 물증이 없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아닌 범죄사실의 소명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조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물증과 진술을 놓고 "이 부회장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9월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범죄사실 소명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했으나 끝

내 무산됐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도 조 부장판사였다. 그는 신 회장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했으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장 재청구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재청구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가 다른 사건들에 대한 스텝도 꼬일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적인 추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dosool@news1.kr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w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Single Family
5 Duxton Lane Acton MA
9,547sqft, 9.13 Acres 8 Bed
4.5 Bath
Under Agreement



Condo
28 Boylston Rd, Unit 1 Newton MA
동문형의 2 Bed 1 Bath 870 sqft
Condo 2 parking space
SOLD



Condo
22 Westland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있는 2BR의 2nd
handmade Cakes, Best Street Bakery,
매일 7-10시까지 개하는 21 평의 1세대
Asking \$291,000, \$299,000



한식&일식 식당
Physical 양재 위치, Full Equip,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monthly turnover.
Asking \$700,000

LISTINGS

- 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1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1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1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1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1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1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1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1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1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1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2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2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2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2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2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2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2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2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2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2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3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3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3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3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3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3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3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3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3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3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4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4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4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4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4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4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4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4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4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4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5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5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5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5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5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5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5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5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5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5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6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6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6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6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6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6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6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6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6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6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7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7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7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7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7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7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7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7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7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7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8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8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8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8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8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8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8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8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8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8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9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91.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92.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93.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94.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95.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96.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97.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98.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99.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 100. Full Profit 2016년 12월 15일 11,000,000 **SOLD**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면적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79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easings 지역
좋은 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폰도
Brookline
현재 서비스업합중.
좋은 임대수입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톤 남쪽에 위치
Full liquor, 양장면 수리
넓은 공간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반기문 "위안부 문제 질문하지 마세요...나쁜 놈들"

"내가 누구냐, 유엔 사무총장 한 사람"

(서울·대구=뉴스1) 김수완, 이정호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 환영' 논란과 관련해 "남을 헐뜯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은) 공정한 싸움이 아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기문 총장은 18일 대구 지역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기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제게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런 오해는 불필요한 오해"라며 "제가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누구냐, 대한민국 국민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며 "제가 장관 할 때부터 위안부 문제를 다뤘고 오랫동안 현안이었다"고 말했다.

반기문 총장은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한이라도 한을 풀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김영삼 정부 때 계속 노력했지만 안 됐다"고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위안부 관련 합의 경과

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총리대신 명의로 사죄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한다고 태도를 바꿨고 (피해보상금도)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인) 아시아기금을 만들어서 자민당 총재의 서한을 거쳐서 전달했다"며 "당시에 제가 외교안보수석을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민족의 자존심이 다치는 거다, 못 받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돈을 다 찾아서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랫동안 걸렸던 위안부 문제가 드디어 총리가 사과하고 정부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돼야 하는데 그건 아니라도 기틀은 잡혀간 것이다"고 '환영 입장'을 해명했다.

그러나 반기문 총장은 해명을 마치고 "정치가 잘못되고 있으니 국민들의 잘못을 유도하고, 이용당하고 있다. 페이크 뉴스라든지 가짜 뉴스, 남을 헐뜯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이 아니다"며 자신의 입장과 관련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반기문 총장은 "약간의 실수, 실수도 아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하면서

서로 싸울 상대를 많이 만났다, 어떤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며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면 서글픈 일이고 정치를 개혁해야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기문 총장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다 검토하고 비판하라, 얼마든지 정책적인 대결을 벌이겠다"며 "저를 따라다니면서 위안부 문제 (질문)하지

마세요, 그건 공정한 싸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총장은 이날 자리를 뜨면서도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것만 물어보니까 내가 마치 역사의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나쁜 놈들'이예요"라며 격앙된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abilityk1@news1.kr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대구 서구 음식점에서 한국 JC대구 지구 임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반풍', 왜 미풍에 그쳤나...귀국 효과 적었던 이유 4가지

각종 논란에 '귀국 컨벤션 효과' 제대로 누리지 못해 하루 수백km 강행군에 관심 불러일으키는데는 성공

(서울=뉴스1) 최중무, 조소영, 박응진 기자 = 19일로 귀국 일주일을 맞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충청과 영·호남을 아우르는 광복행보에 나섰지만 예상 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반기문 총장이 귀국 후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태풍(颱風)'이 아닌 '미풍(微風)'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부족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두루뭉술한 행보 △야권의 검증공세 △귀국 후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구설수 등을 반기문 총장이 '귀국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다만 하루에 수백km에 달하는 강행군을 펼치면서 대권 주자로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반기문 총장은 귀국일성으로 '정치교체'를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그는 전날(18일) 광주 조선대학교 강연에서

정치교체와 관련 '개헌, 사회개혁,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을 포함해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반기문 총장이 정교체 선언을 했는데 국민들에게 그 정치교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방향제시를 보여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좀더 정교하게 짜여지고, 강한 메시지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 정치평론가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뭉은 고달프게 많이 움직였는데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주는 무게감이나 충격과는 미흡하다"며 "본인이 대권을 결심하고 들어왔다면 묵직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어야 하는데 반갑스러울뿐 가성비가 별로"라고 평가했다.

자신을 '진보적보수주의자'로 지칭하면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두루뭉술한 행보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 공감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반기문 총장의 행보가 보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모두

를 사랑하겠다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반반(半半)의 눈치보기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기대를 유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좌고우면의 행보를 보이면 자칫 다른 사람을 위한 불쏘시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대대적인 검증 공세도 반기문 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야권은 반기문 총장의 동생과 조카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흠결이 생겼다"고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반기문 총장측은 야권의 검증 공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허위사실 보도나 무차별적인 인용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반기문 총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국 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는 각종 구설수도 악재다. 반기문 총장의 준비 부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기문 총장은 지난 12일 귀국 후 '에비앙 생수 논란', 전철표 판매기에 지폐 두장을 넣으려 한 '2만원 논란', 현충원 방명록에 미

리 써온 메시지를 옮겨 적은 '수첩 논란', 음성꽃마을에서 환자 식사 배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떡볶이 논란', '퇴주잔 논란'에 이어 전날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나쁜 놈' 논란까지 빚었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준비 안 된 분이 서두르기까지 하나씩,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기자들과의 신경전)도 워트로 넘길 수 있는데 사사건건 기자들에게 'X'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진짜 준비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주일 간 강행군을 마친 반기문 총장이 대권 주자로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할 지 여부는 설 연휴 이후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kjmf@news1.kr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불판

바베큐&라운지



ALL YOU CAN EAT:
\$39.95

안장살, 주물럭, 불고기, 차돌박이, 닭불고기, 돼지불고기, 삼겹살, 뼈없는 갈비, LA갈비, 통심, 곱창, 새우, 오징어, 모듬고기 등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반찬 및 공기밥



가장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영업 시간
 Mon-Thu : 11:30am to 10:00pm
 Fri-Sat : 11:30am to 11:00pm
 Sun: 12:00pm to 10:00pm

연회석
60여명 수용, 가라오케 완비

스시바
각종 스시 및 상생한 회

히바치

바베큐
안장살, 주물럭 등 각종 바베큐

BAR
Full Liquor 라이센스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트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용코도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Dr. Larisa Turka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통 현
 교정 전문의

'독도 소녀상' 민경선 경기도의원 "연말 설치 목표"

법적 절차 지적에는 "이명박 당시 표지석 세워"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평화의 소녀상' 독도 설치 문제가 한-일 간 극한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한 경기도의회 민경선의원(더민주·고양3)은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연말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336호)로 지정된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독도수호표지석'을 세운 전례가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인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도와 도의회 2곳에 소녀상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 의원은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소녀상 설치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 의원은 소녀상 독도 설치와 관련해 "관할지역인 경북도민 등을 포함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굳이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분들도 모두 우리 국민이라는 점에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천연기념물인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전례가 있는 만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한-일 간 논란을 일으켰던 독도수호표지석 설치의 경우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에서 10일 만에 통과한

전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소녀상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라고 주장했다.

설치 장소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위치를 이동할지 여부에 대해 민 의원은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독도 내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소녀상 설치 추진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야욕을 정확히 드러내는 부분"이라며 "우리 땅에 소녀상을 세우는 문제는 우리 국민이 결정할 문제이다. 이는 분명한 내정간섭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소녀상 설치를 위한 모금운동 발표 이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한 국민들의 격려가 쇄도하고 있고 도의원들의 독도사랑회 가

입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상반기 중 모금을 완료해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녀상 설립 모금함은 현재 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돼 있고 앞으로

독도사랑회 가입 도의원의 지역구 공공장소 등에 모금함 설치 추진, 기부금법 등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계좌이체도 받을 계획이다.

syh@news1.kr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다 털어놓은 정호성... "대통령 지시로 崔에 문건전달"

부인하던 '비밀누설' 혐의 다시 인정해
"대통령 보좌 위한 것...공모여부 법원에 맡긴다"

(서울=뉴스1) 문창석, 성도현, 윤수희 기자 =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씨에게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에게 문서를 전달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도 자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8일 오전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180여건의 청와대·정부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그 중에는 '새 정부의 행정부조직도'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함됐다.

그는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큰 틀에서 박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해 (정 전 비서관은) 그걸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드렸다"고 설

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9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 강갑진 변호사는 "피고인의 공모와 관련해 법률 판단에 혼동이 있어 마치 부인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고 여러 변호인과의 이야기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박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겼다. 강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사실상 공모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사실 관계를 인정해서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비서관이 (이번 건에 대해) 공모라고 할 수 있는지 헷갈린 것"이라며 "본인이 그 정도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 해 그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에게 유출한 고위직 인사자료 및 발표자료 등 47건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

판부는 정 전 비서관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후 "47건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문서유출에 대해 박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의견을 구한 건) 대통령이 걱정하는 게 있어 뭔가 잘 해보려고 한 번이라도 체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정 전 비서관은 고위직 인사자료 및 발표자료를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최씨에게 받은 도움 때문에 박 대통령이 최씨를 신뢰했고 국정 전반에 최씨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1197회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895회의 통화를 하는 등 총 2092회의 연락을 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뒤 문자로 확인한 것도 237건이나 됐다.

재판부는 2월16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3차 공판을 열고 검찰로부터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한 증거조사와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themoon@news1.kr

헌재 출석 정호성 "차대통령, 차명폰 갖고 있다" 진술

"이전 정권부터 도·감청 논란있지 않았나"

(서울=뉴스1) 안대용, 최은지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8)이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차명폰을 갖고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와 2013년 2월부터 22개월 동안 대략 하루에 평균 2~3회 전화·문자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연락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와 차명전화로 연락했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굳이 차명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우리 정치에 좀 나쁜 부분인데 옛날부터 어느 정권이라고 얘기 안 해도 이전 정권부터 폭도·감청 논란이 있지 않았나"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하고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딱히 도청된다 이런 거를

확신해서라기보다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비해서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거를 통해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대면보고 외에 전화통화를 했다며 "대통령님과는 따로 직접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차명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의) 업무용 휴대전화 차명폰을 본인이 휴대하는지, 수행비서관에게 맡기는지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윤진추 행정관이 지난해에 증인신문에 나왔을 때 청와대 외부 행사에 참석할 때는 휴대 전화를 청와대 내에 놓고 와서 수행비서관과 연락한다고 했다"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지적엔 "행사나 업무볼 때 (대통령이) 주로 꺼놓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 전화가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윤 행정관이 얘기한 게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dandy@news1.kr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당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체중관리에서 영양 상담까지,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tuftshealthdirect.com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건강보험권 선의를 위해서는 MAhealthconnector.org를 방문하세요. ©2016 Tufts Health Public Plans, Inc.

Norcom Mortgage 마이클 리 모기지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ks.lee@norcom-usa.com

전문 분야

융상 대출
정부대출: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전보통
피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올림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S #148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9534406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96
Fannie Mae/Freddie Mac seller/servicer
Ginnie Ma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 978.314.8818
Cambridge, MA 02140

마이클 리 종합 보험

의료보험/생명보험/연금보험
메디케어/상해보험
스몰 비즈니스 팩넷 패키지
인슈어런스 브로커

**2017년 의료보험 평균 20%이상 인상
OPEN-ENROLLMENT 의료보험 무료 상담**

www.MyInsuranceMA.com (한국어 웹서비스)

**2017년 매사추세츠 의료보험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맞는 맞춤형 의료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의료보험도 인상을 대체하는 보조플랜

Accident, Disability, Active Care
사고시 의료보험과 무관한 혜택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컴 프로텍션 플랜
암, 심장병, 뇌졸중 보험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는 플랜

모기지 프로텍션 플랜
학자금 저축 플랜
무자상 없어 안전한 연금플랜
Express Term Life
Universal/Whole Life

Michael Lee
National Fire Under License No. 126827
Massachusetts License No. 223482
Licenses in Health, Life,
Selling, Series 63,
Property & Casualty (in process)

Health/Life/Disability/Medicare/
Disability/Long Term Care/
Retirement/IRA Insurance Broker

Health Crossroads/MA/USDA
Approved Broker

MA, 모든 영도인사이드 캐슬터 가입:
ICB, FICA, HMO, Medicare,
Hydrex, PMA, Network, & etc

mlee@MyInsuranceMA.com

**978.314.8818 |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Gina Choi
978.866.3248



Al Magurn
508.733.2949



OFFICE LOCATIONS



Massachusetts
Corporate HQ
Belmont
Concord
Easton
Hudson
Littleton
Maynard
Norwood
Plymouth
Woburn
Westborough
Whittinsville
Yarmouth Port

Maine
Kennebunk
Portland
Saco
Sanford

Rhode Island
Newport

LEXINGTON/BOSTON OFFICE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Angela Eleazar
617.319.6657



Vicky Xiao
617.480.6362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패츠와 스틸러스 AFC 챔피언 자리 놓고 격돌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텍사스를 34대 16으로 격파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NFL 역사상 처음으로 6시즌 연속으로 AFC 챔피언십 게임에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패트리어츠가 수퍼볼에 진출하기 위해 꺾어야 할 상대는 AFC 2번 시드였던 치프스를 상대로 승리한 스틸러스다.

패트리어츠와 스틸러스는 이미 올해 정규시즌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7주차 경기에서 패트리어츠는 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7대 16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 AFC 챔피언십 경기는 정규시즌 때와는 양팀 모두 상황이 다르다. 당시 패트리어츠에서는 NFL 최고 타이틀 엔드인 랍 그롱코스키가 경기에 출전했지만 지금은 등 수술로 인해 경기에 나올 수 없다. 반면에 스틸러스는 지난 정규시즌 당시 주전 쿼터백인 벤 로슬리스버거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한 상태에서 백업 쿼터백이 출전했다.

지난 16시즌 동안 치러진 AFC 챔피언십 경기 중 무려 14번이 패트리어츠나 스틸러스, 혹은 두 팀이 맞붙은 경기였다. 그만큼 두 팀 모두 AFC에서 10년 이상 강팀으로 군림해 오고 있는 팀들이다.

패트리어츠와 스틸러스가 격돌할 AFC 챔피언십 경기에 앞서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자.

강대 강 대결:

스틸러스는 플레이오프를 포함하여 최근 9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공격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스틸러스의 쿼터백-러닝백-와이드 리시버는 모두 이름에 알파벳 B가 들어 있어, 벤 로슬리스버거-르베온 벨-안토니오 브라운을 합쳐 '킬러비'라고 불리고 있다. 이 트리오의 실로 막강한 화력을 뽐내며 팀의 승리를 이끌고 있다.

반면에 패트리어츠의 수비에는 킬러비와 견줄만한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 그러나 경기당 15.6점만을 허용하고 있는 패트리어츠의 수비는 NFL에서 가장 적은 점수를 내주고 있다. 스틸러스의 리시버와 패트리어츠의 코터백, 스틸러스의 러닝백과 패트리어츠의 라인배커 간의 대결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빅 벤의 복귀:

올해 정규시즌에서 패트리어츠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패트리어츠의 승리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10월 경기에서는 스틸러스의 주전 쿼터백인 빅 벤이 경기장에 없었고, 이번에는 출전한다는 것이다.

패트리어츠와의 경기 바로 1주 전에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빅 벤은 패트리어츠와의 경기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AFC 챔피언십 게임에서 맞붙게 되었다

전할 수 없었다. 주전 쿼터백과 백업 쿼터백이 이끄는 공격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AFC 챔피언십에서의 스틸러스는 3개월 전의 스틸러스보다 훨씬 강력한 팀이다.

승리의 변수:

패트리어츠가 보유한 최고의 무기였던 그롱코스키가 시즌 후반에 등 수

술로 더 이상 출전을 못하게 되었지만, 대신에 러닝백 디온 루이스가 부상에서 회복되어 복귀했다. 루이스는 수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다.

지난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루이스는 NFL 플레이오프 경기 최초로 한 경기에서 러닝 터치다운, 패스 리셉션 터치다운,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동시에 성공한 선수가 되었다. 순발력과

방향 전환 능력이 뛰어난 루이스는 상대 수비수의 태클을 쉽게 무력화 시킨다.

1:1 대결에서는 루이스를 막기가 쉽지 않다. 스틸러스가 AFC 챔피언에 오르기 위해서는 루이스를 상대하기 위한 창의적인 게임 플랜이 필요할 것이다.

jsi@bostonkorea.com

이어지는 류현진 향한 물음표, 쉽지 않은 2017시즌 선발 경쟁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LA 몬스터'로 불렸던 류현진 (30·LA다저스)을 향한 현지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현지 언론에서는 지난해 1차례 빅리그 등판에 그쳤던 류현진의 복귀에 대해 여전히 비관적인 시선이 많다.

2013시즌을 앞두고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은 2년 동안 팀의 3~4선발로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2013년과 2014년 두 시즌 동안 총 56경기에 선발로 나와 평균자책점 3.16을 기록하며 28승(15패)을 수확했다.

하지만 2015년 초반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은 뒤부터 많은 것들이 꼬였다. 수술 받은 그 해를 통째로 쉬었고, 지난해에는 1경기에 선발 등판했지만 1패에 그쳤다.

두 시즌만의 복귀전에서 4⅓이닝 8피안타 6실점으로 부진했고 팔꿈치 건염 등으로 다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그리고 9월말에는 관절경 수술을 받고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다.

국내에서 훈련하다 최근 일본 오키나와에서 담금질에 한창인 류현

진의 올 시즌 전망은 냉정하게 봤을 때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일단 다저스는 선발 자원이 넘쳐난다.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분명 선발 경쟁을 펼칠 수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만큼 다저스의 마운드 자원은 풍부하다.

다저스는 올해 클레이튼 커쇼와 리치 힐, 마에다 켄타가 확고하게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스캇 카즈미어나 브랜든 맥카시 등 베테랑 투수들도 버티고 있다. 여기에 홀리우 유리아

스, 호세 데레온 등 유망주들도 선발 후보군이다.

MLB.com은 지난 18일 올 시즌 부상 복귀자들을 예상하며 "카즈미어와 맥카시는 스프링캠프 첫 날부터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류현진은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고 했다.

지난 6일 일본 오키나와로 떠난 류현진은 1월말 미국으로 출국해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류현진측 관계자는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alexei@news1.kr



LA 다저스 좌완 류현진

2016-2017 NFL 플레이오프 스케줄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6-2017시즌 NFL 플레이오프가 단 세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다.

AFC 챔피언십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로 1월 22일 오후 6시 40분 매사추세츠 팍스보로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

NFC 챔피언십은 그린베이 파커스와 애틀란타 펠콘스의 경기로 역

시 1월 22일 오후 3시 5분 조지아 애클란타 조지아 돔에서 진행된다.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인 수퍼볼은 1월 22일 치러지는 AFC 챔피언십 승자와 NFC 챔피언십 승자의 경기로 한 주 후인 2월 5일 오후 6시 30분 텍사스 휴스턴 NRG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AFC Championship Game	
	
Sunday, Jan. 22 - 6:48pm ET, CBS	
(3) Pittsburgh at (1) New England Gillette Stadium, Foxborough, MA	
NFC Championship Game	
	
Sunday, Jan. 22 - 3:16pm ET, FOX	
(4) Green Bay at (2) Atlanta Georgia Dome, Atlanta, GA	
Super Bowl LI	
	
Sunday, Feb. 5 - 8:38pm ET, FOX	
AFC Champion vs. NFC Champion NRG Stadium, Houston, TX	

자료출처: FBSchedules.com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주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2,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ll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보스톤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과 기쁨의 터전입니다 (행 2:14)

주일예배 / 오후 2:45 |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송년 / 송년 / 초빙 / 경외동부예배 / 생연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 12:00 | LIFE 모임 / 주일 8:00

담임 목사 / 우시환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톤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매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말씀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임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37.9117
www.mil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I49에서 15분 거리

유체부: 임성경 목사
유년부: 임경숙 목사
유소: David Moon 권도사
영남/360: Erika Kim 권도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SARANGJELGWOCHU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Ft. DR.
New York Univ. MAJ.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가동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2시
주일 학교	오전 2시
경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85, (978) 944-2404
www.sarajel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공교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9월~5월)
우스터한인학교: 월 9:30~11:30

담임목사: 김현덕
817.73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2.790.4488
<http://www.wkmc.org>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전혀 미처 알지 못한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무릎 꿇고 사모 사방에서, 그 사랑으로 열린 교회를 열망하십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활하신 영광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영광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예배: 주일 오후 12:30
속회예배: 수-주일 속회별
영년예배: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관련회사로서 미 할매 세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Flex2it 신용카드 결제, 가짜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영수증 처리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신용카드사 겸사령기 **이선호**
781.266.7245



HAPPY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고품격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음력을 더하는 최첨단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제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류와 천기, 골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주재원 비자 (L-1)
- 취업이민 (EB-2, EB-3, EB-4)
- 투자이민 (EB-5)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 단기연수원 비자 (H-3)
- 특가자 비자(O-1, P-1)
- 종교비자 (R-1)
- 투자비자 (E-2)
- 가족초청이민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13
니뎀에 위치한 세탁소에서 카운터로 일하실 분 구함.
T. 781-854-2193

1/20
청소하실 분 모집합니다. 영주권 소지자.
T. 617-869-1698

1/27
북부 보스톤 지역 세탁소에서 카운터 구함. 풀타임. 초보자 환영
T. 978-462-9951

2/3
렉싱턴에 있는 식당. 웨이터 또는 웨이트레스 및 주방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781-860-0171 (Kay)

재택 간호인 구함

한국어와 영어 가능한 재택 간호인 (HHA/CNA/nursing student) 으로 웨슬리에 거주하시는 박인순 할머니 돌봐주실 분 구함.

모집조건:

- 연장자 케어 경험있는 분.
- 본인 소유차로 의료 예약에 라이드 가능한 분.
- 한국음식 요리 가능한 분.

좋은 보수와 더불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

관심있으신 분은 로즈 앤(Rose Anne)에게 전화: 617-840-2123 로 연락 주십시오.
* 이력서 준비해 주십시오.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런드로맷 판매

메사추세츠 주 서부
30년 운영한 런드로맷 매매 (건강상 이유)
건물 5,600Sq. 가격 \$350,000
연락처: 413-221-1801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긴급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제청	617-536-7469
날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492-83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기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기정선교연합회(NC)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미인사협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인간재단연합회	401-481-4900
한국인사협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미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한미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413-567-9142
뉴햄프셔감리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한인교회	617-990-7619
라이코스교회	603-437-5134
라이스한인침례교회	603-264-6799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508-926-8236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353-0983
메리맥 교회	401-944-2500
목양교회	401-821-2311
무지개교회	978-806-1363
밀양한인교회	617-223-1690
렉싱턴 풍성교회	207-774-1617
버클랜드 침례교회	978-244-0691
보스턴 국제교회	617-953-0856
보스턴 감리교회	617-864-5948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459-6479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781-393-00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617-285-8870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844-2404
보스턴 서부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성결교회	617-947-6765
보스턴 성서교회	617-777-1800
보스턴 시온성교회	978-578-6987
보스턴 신성교회	781-894-3958
보스턴 안음교회	781-275-8233
보스턴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턴 시온성교회	781-686-5526
보스턴 안식교회	781-275-1763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279-3270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 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턴 제일교회	508-435-4579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458-2733
보스턴 중앙교회	617-966-9608
보스턴 침례교회	617-230-5004
보스턴 그리스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턴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건판

조이스건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터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Hana Rehab Clinic	508-584-5860
보스턴컨설팅카운슬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얼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콤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케이티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 살롱	8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턴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인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벤가드(이재용)	617-421-2282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은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형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설팅카운슬러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신아연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닉스	617-871-1482
켄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환치과	978-459-0594
프로그래밍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온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868-2

백내장과 녹내장,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휴먼 네트워크와 제휴한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 "백내장과 녹내장은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실명원인 질환이지만 발생부위와 증상은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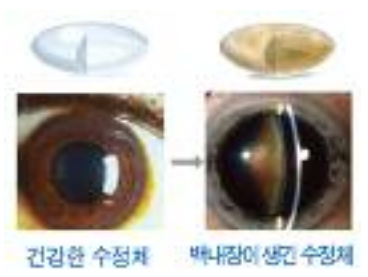
흔히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진 백내장과 녹내장. 한번쯤 들어 봤을 법한 안과질환이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대부분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고 실명원인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부위와 증상은 전혀 다르다.

◎ 백내장과 녹내장 어떻게 다른가? 백내장의 발생부위는 눈속의 카메라 역할을 하는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녹내장의 경우는 자각증상이 없는 질환으로 자각증상을 느끼면 실명에 가까워 있을 만큼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다.

백내장은 시야가 뿌옇게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녹내장은 말기에도 정상시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 검진을 하지 않고서는 알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40대부터 노안이 시작되면 눈 속 수정체는 원근조절력이 둔해져 작은 글씨를 가까운 거리에서 읽기 어려워진다. 노안으로 근거리작업이 어려워지면 대개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거나 어느 순간 불편함에 익숙해져 증상을 방치하곤 한다. 하지



건강한 수정체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



만 문제는 백내장의 초기증상 역시 노안증상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안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녹내장은 초기에 통증이 없고 자각증상만으로 알기 어렵다. 단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두통, 안통, 구토 등이 동반하면서 급격하게 안압이 상승, 시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백내장은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가 노화로 인해 흐리고 혼탁해지면서 안구로 유입되는 빛을 차단해 사물을 선명하게 보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사물이 여러개로 겹쳐 보이거나 눈부심, 빛반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색상이 바래보이기도 한다.

녹내장은 안구형체를 유지하는 압력 즉, 안압이 높아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시신경이 조

금씩 손상돼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이다. 대체로 시야가 오랜기간을 두고 조금씩 좁아지면서 결국에는 간신히 중심시야만을 유지하거나 실명에 이르기도 한다. 시야가 좁아진 사실을 알아차린 시점은 이미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치료법은? 백내장은 수술로 시력 회복, 녹내장은 시력회복 어려워

백내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원인 1위 질환이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백내장수술로 치료 가능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백내장수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 오히려 백내장수술에 삽입되는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 백내장 질환치료와 함께 노안교정도 함께 하고 있으며 난시까지 교정할 수 있다.

녹내장의 치료방법은 안약을 점안하거나 수술로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녹내장 진단을 받은 시점에서 치료를 한다 해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 생활 속 예방수칙은? 정기검진 통해 눈건강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성 백내장수술 건수가 36만6689건으로 1위를 차지할 만큼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녹내장환자수는 2011년 52만 5614명에서 2015년 76만734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40대 환자수도 지난해 기준 약 13.4%를 차지했다.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40대 중년층도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40대부터 정기적인 안검진을 통해 눈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내장은 선천성 백내장이나 외상성 백내장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나 스테로이드 약물, 흡연, 당뇨, 고혈압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내장을 일상생활에서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적인 생활습관, 금연 등이 도움이 된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검진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



정상적인 시력

중증도 녹내장

심한 녹내장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3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통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과로,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압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개인기밀 특별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평가
(2000~500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O, 후쿠에이, 학교/유학생/여행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미씽나인', 비행기 추락에 표류 전대미문 재난 드라마 탄생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미씽나인'이 비행기 추락 사고 후 생존한 백진희의 미스터리를 추적하며 눈 뿜 수 없는, 흥미진진한 전개를 펼쳐냈다.

18일 밤 10시 첫 방송된 MBC 새 수목드라마 '미씽나인'(극본 손황원 / 연출 최병길) 1회에서는 무인도에서 깨어난 라봉희(백진희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라봉희는 정신을 차린 후 주위를 살펴 다 혼란스러워 했고,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다가 한국으로 귀국했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라봉희는 어머니만 유일하게 기억했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귀국 현장에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조희경(송옥숙 분)이 등장했고, 상황을 전혀 인지 못하는 라봉희를 보고 대뜸 끌어안더니 취재진을 의식하며 사진을 찍었다. 이후 조희경은 라봉희와 단둘이 남자 라봉희에게 "그간 당신과 드리머즈의 생사 여부 때문에 4개월간 나라가 너무 시끄러웠다"며 "잡잡해지나 했는데 나타난 거다. 당신이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팩트를 가져와야 혼란을 가져와선 안 되지 않나. 무슨 수를 써서 기억을 되살리라"고 소리쳤다.

라봉희는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고 '미씽나인'의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갔다. 라봉희는 한때 인기 스타였으나 지금은 추락한 스타인 서준오(정경호 분)의 코디네이터로 취직했다. 서준오는 그룹 드리머즈 리더로 뜨거운 인기를 구가했으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드리머즈는 해체되고 말았다. 솔로 음반으로 재기를 노렸지만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서준오를 만나기 위해 라봉희는 매너지 정기준(오정세 분)과 함께 촬영 현장으로 향했다.

촬영 현장에서 서준오는 갯벌에서 구르다 온 모습으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함께 드리머즈 멤버로 활동했던 멤버 최태호(최태준 분) 대타로 투입됐다는 사실을 알고 촬영을 거부하고 있었다. 서준오는 촬영을 거부할 양상으로 대신 의상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라봉희가 가져오는 의상 족족 태클을 걸며 촬영을 피하려 했다. 급기야 라봉희가 마지막으로 내민 것은 선글라스. 이 때문에 서준오의 화는 크게 폭발하고 말았다.

그 선글라스는 최태호가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의 것이었던 것. 이로 인해 라봉희는 첫 출근부터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정기준의 설득으로 라봉희는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라봉희는 레전드 엔터테인먼트 전용 비행기에 올라 소속 연예인들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됐다. 비행기에서 라봉희는 톱여배우 윤소희(류원 분)를 만나게 됐고, 최태호와 하지아(이선빈 분)가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하지아는 라봉희가 자신들을 몰래 촬영한다 오해했다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오해를 풀었다.

순간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위기가 감지된 사이 드리머즈 전 멤버들 서준오와 최태호, 이열(박찬열 분)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열이 한 음원을 들려줬고, 최태호는 서준오에게 "평생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만든 노래"라고 서준오를 도발한 것. 이열이 말했지만 최태호는 "왜 해체됐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고"라며 "저 새끼 사람 죽인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그 상황에서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했고 비행기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비행기는 바다에 추락했고 탑승자들은 모두 바다에 표류하게 됐다.

빠른 전개, 눈을 땔 수 없이 휘몰아치는 속도감 '미씽나인'은 첫 회부터 주인공 정경호(서준오 역)와 백진희(라봉희 역)의 첫 만남에서부터 비행기 추락사고까지 빠른 전개로 남다른 속도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9명 캐릭터에 대한 설명부터 추락 사고라는 큰 사건까지 실 틈 없이 휘몰아치며 시청자를 쫓기까지 만들 전망이다. 긴박감 넘치는 전개는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초를 암시, 한 시도 눈을 땔 수 없게 한다.

과거-현재 오가는 전개로 풍성한 스토리 완성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흥미로운 스토리로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일 '미씽나인'은 추락사고와 무인도 표류기가 과거로, 4개월 후 유일한 생존자로 나타난 백진희의 등장이 현재 시점으로 전개된다. 이 같은 시점의 변화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 궁금증을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 추리하는 재미까지 더하며 '미씽나인'의 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게 이끈다.

aluem_chang@news1.kr

'더 킹' 이미 흥행킹...전 예매 사이트 압도적 1위 석권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 '더 킹'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예매율 1위를 비롯해 전 예매사이트까지 압도적인 예매율 1위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더 킹'은 18일개봉 당일 오전 10시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예매율 집계에서 예매율 38.8% 및 사전 예매량 10만4151명으로 압도적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애니메이션 흥행 바람이 불던 1월 극장가에 한국영화의 자존심을 지키며 새로운 흥행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더 킹'은 영진위 통합전산망 및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네이버, 맥스무비, 예스24, 인터파크 등 대한민국 전체 예매사이트에서 높은 예매율 수치로, 흥행 궤도에 올랐다.

이처럼 '더 킹'의 예매율 1위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개봉 2일 전 월요일 오전 상업성과 대

중성, 작품성까지 인정받은 1000만 영화 '베테랑'과 '암살'의 기록을 뛰어넘었으며, 2017년 한국영화 개봉작 중 가장 높은 예매율을 보이며 폭발적인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개봉을 맞은 '더 킹'은 영화에 대한 높은 완성도에 자체적으로 입소문이 확산, 시간이 흐를수록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2017년의 흥행을 여는 작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진행되는 릴레이 무대인사를 통해 뜨거운 흥행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더 킹'은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폼나게 살고 싶었던 태수(조인성 분)가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정우성 분)을 만나 세상의 왕으로 올라서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다.

aluem_chang@news1.kr



권상우,한지민 등 '내집이 나타났다' 특급 게스트 공개

(서울=뉴스스타) 강희정 기자 = '내집이 나타났다'의 초특급 게스트 라인업이 공개됐다.

내달 3일 밤 9시 처음 방송되는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내집이 나타났다' (이하 내집이다)의 사연 가족 맞춤형 건축을 책임질 게스트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권상우, 김종국, 이정진, 장혁, 주상욱, 한지민까지 '초대형 신축 프로젝트'에 걸맞는 국내 최고의 배우와 한류 스타들이 총집합한다.

각 게스트는 '내집이다'에서 매회 사연자 가족을 위한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등 집짓기에 적극 참여한다. 거친 공사 현장부터 가구를 만드는 공방까지 동분서주하는 활약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또한 게스트

들은 각 가정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공감하며, 인간적인 면모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내집이다'는 JTBC가 신년을 맞아 진행하는 초대형 신축 프로젝트로 이경규, 채정안이 MC를 맡았다. 한 가족의 삶의 기본이 되는 '집'을 다양한 사연에 맞게 지어줌으로써 대한민국 가정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장장 8개월이 넘는 사전제작 기간과 약 700여 명의 스태프가 투입된 '내집이다'에서는 집 철거부터 완공까지 집짓기의 모든 과정과 최신 트렌드의 건축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hjk0706@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1월 9일 ~ 2017년 1월 15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32.5%
2	SBS	월화드라마(낭만닥터김사부)	26.4%
3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3.5%
4	SBS	드라마스페셜(푸른바다의전설)	19.9%
5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18.5%
6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17.6%
7	MBC	무한도전	15.4%
8	KBS1	KBS9시뉴스	14.9%
8	KBS2	해피선데이	14.9%
10	SBS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14.4%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3	KBS2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4	SBS	일일드라마(사랑은방울방울)
5	MBC	MBC아침드라마(언제나봄날)
6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7	MBC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8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9	SBS	아침연속극(아임소리강남구)
10	MBC	일일특별기획(황금주머니)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당신의 밤 (Feat. 오혁)	황광희 X 개코
02	에라 모르겠다	BIGBANG
03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04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
05	LAST DANCE	BIGBANG
06	Decalcomanie (데칼코마니)	마마무
07	저 별	헤이즈
08	TT	TWICE
09	쏘아	하하 X MINO
10	우주를 줄게	볼빨간사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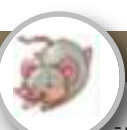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9	5	1			4
4			9	3		8	
2				7		5	
				8		4	7
		2		3		6	
3	4			5			
	6		3				2
	5		2	8			9
1			4		6	5	

1월 22일 - 1월 2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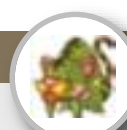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쥐띠 |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운수:어수선하고 안정이 되지 않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미리 발견할 수 있으니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애정:가족 간에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5, 27일 길일. 22, 28일 주의.



소띠 |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운수: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금전:신통치 않는 매출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힘들수록 환하게 웃어야 밝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애정:하루라도 빨리 관계의 끈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대로 질질 끌려가다가는 결국 상처만 커집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2,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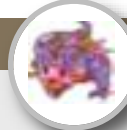
범띠 | 선긋기를 잘해야

●운수: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빼놓고 다닐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금전:선긋기를 잘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무르게 대응하면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애정:부부문제나 남여문제에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괜히 말해서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4일 주의.



토끼띠 | 평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운수: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금전:자신의 이익보다 여러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면 결국은 자신에 득이 됩니다. ●애정: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누구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면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4,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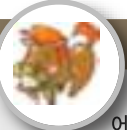
용띠 |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운수: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도 때가 아니면 잘 되지 않고 지치기만 합니다. ●금전: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 보는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애정: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게 설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2,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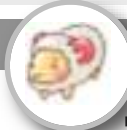
뱀띠 | 한 걸음 내딛기 전에

●운수:적진인지도 모르고 무방비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으니 한 걸음 내딛기 전에 미리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아무리 급하더라도 미리 만약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애정:사랑을 의심하고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더 클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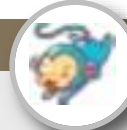
말띠 | 새로운 길이 열릴

●운수:이제는 노선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걸어오던 길과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금전:새로운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거래처도 늘어나고 수입이 나아지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상대에 대한 애정이 샘솟는 시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귀에 들리지 않고 한사람의 말만 들릴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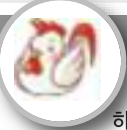
양띠 | 필연적인 느낌을 주는

●운수: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일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조금만 발품을 팔면 좋은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활동에 박차를 내보세요. 모처럼 여유 있게 웃을 수 있겠습니다. ●애정:꼭 만나야 될 인연을 하늘이 묶어줄 것입니다. 우연보다 더 강한 필연적인 느낌을 주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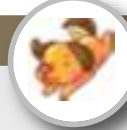
원숭이띠 | 열린 마음으로

●운수: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결코 배반하지 않는 좋은 결과로 답해줄 것입니다. ●금전:꼭 필요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내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더욱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2, 25일 길일. 24, 2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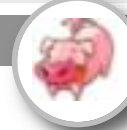
닭띠 | 인생이 주는 신호등을

●운수: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면 빨리 쉬거나 약을 복용하세요. 무리하고 버티다가는 큰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인생이 주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애정:좋은 이미지를 쌓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사에 최선을 잘해야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3, 26일 길일. 25, 28일 주의.



개띠 | 인생을 바꿀만한 천금 같은 기회

●운수:어느 날 급작스럽게 사고가 찾아오듯이 인생을 바꿀만한 천금 같은 기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금전:매상이 떨어져서 고민하던 사람도 돌아가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얼굴이 밝아집니다.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니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애정:일과 사랑을 동시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7, 28일 길일. 25, 26일 주의.



돼지띠 |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운수:정확하게 사태파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진지도 모르고 건너가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전:내 뜻과는 반대로 가기 쉽습니다. 잘되겠지 믿거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애정:너무 깊이 알고려 하지 마세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5, 28일 길일. 24, 27일 주의.

주원♥보아, 발빠른 열애 인정 연상연하 ★커플 탄생

(서울=연합뉴스) 강희정 기자 = 배우 주원, 가수 보아가 열애를 인정하고 연예계 연상연하 커플 대열에 합류했다.

주원 소속사 하이브라더스 관계자는 18일 오전 뉴스1스타에 "주원이 보아와 교제 중이다"라고 밝혔다. 열애설이 불거진 직후 발빠른 열애 인정이었다. 관계자는 "예쁘게 지켜봐달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1시간여 후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음악, 연기 등 공통의 관심사가 많아 호감을 갖게 됐다"며 열애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평소 지인, 동료들과 모임 등을 통해 알게된 후 지난해 말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알려졌다. 영화와 운동 등 공통 관심사와 취미도 잘 맞아서 사이 진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연예계 공식 연상연하 커플이 추가됐다. 주원은 1987년생, 보아는 1986년생으로 1살 차이가 난다. 연예계 대표적인 연상연하 커플로는 최근 결혼을 발표한 비-김태희



를 비롯해 기성용-한혜진, 류상욱-김혜진, 임요환-김가연 등이 있다.

한편 주원은 지난 2006년 뮤지컬 '알타보이즈'를 통해 데뷔했다. 지난 2015년 SBS 드라마 '용팔이'로 활약하며 그해 연기대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보아는 2000년 가요계 데뷔 후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아시아의 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는 JTBC 드라마 '이번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에 출연,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hjk0706@news1.kr



'비♥김태희' 부부됐다 5년 열애끝 결혼

(서울=뉴스1스타) 황덕현 기자 =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35)와 배우 김태희(37)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성당에서 5년 열애의 종지부를 찍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비공개로 치러진 혼례미사에서 두 사람은 양가 가족과 지인, 소속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다.

연예인 하객으로는 비가 2014년 세레발을 당시 대우받던 배우 안성기와 비를 데뷔시킨 제작자 겸 가수 박진영을 비롯해 가수 싸이, 아이돌그룹 지오디(god)의 박준형·윤계상·김태

우, 서울대 동문인 배우 이하늬 등이 참석했다.

2011년 한 소셜커머스 광고에 함께 출연한 둘은 2012년 가을부터 교제를 시작한 5년차 커플이다. 불화나 결별설 없이 교제를 이어온 이들은 지난해 11월 양가 상견례를 한 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

급하게 결혼을 준비한 두 사람은 신혼여행지를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녀 계획 등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신혼집은 비가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으로 알려졌다.

ace@news1.kr

'해투3' 김응수 "공유 외모 안 부럽다"...같은 도깨비상?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배우 김응수가 공유와 '외모 비교 거부'를 선언했다.

김응수는 최근 진행된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3' 녹화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나와 공유 중

누구로 태어날 것이냐"는 질문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라고 대답해 시선을 모았다.

그는 이어 "공유가 뭐가 부럽냐"면서 "내가 공유 나이 때 사진을 올리겠다. 공유보다 더 잘생겼다"고

주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MC 유재석은 "도깨비상은 도깨비상이시다"라며 공유가 아닌 '현실 도깨비' 쪽으로 결론을 지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nahee126@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량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배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dys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098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보스' 첫방 3.2% 기록, 로코 명가 tvN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내성적인 보스'가 첫 회부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1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1시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내성적인 보스' 1화는 케이블, 위성, IPTV 통합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이 평균 3.2%, 최고 4.1%를 기록했다.

타깃시청률(남녀2049세)은 평균 2.4%, 최고 3%로 케이블과 종편을 통틀어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녀 10대부터 40대 시청층에서도 케이블과 종편을 통틀어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베일에 싸인 유령으로 불리는 은환기(연우진 분)와 채로운(박혜수 분)이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또 채로운이 은환기의 비서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언니 채지혜(한채아 분)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은환기의 회사에 취직, 남다른 사고성으로 직원들과 친분을 쌓으며 그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날 방송에서는 배우들의 신선한 캐릭터가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내성적인 보스 '은환기'를 연기한 연우진은 검은 모자와 후드티를 뒤집어쓴 채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비서 김교리(전효성 분)를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했지만 같이 먹자고 말하지 못하는 극소심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는 뮤지컬 단역 배우인 채로운의 팬이지만 그녀에게 꽃다발을 직접 전달하지 못해 매번 꽃 배달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reddgreen35@news1.kr



티보플레이 1월 2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2	MBC	불어라 미풍아
3	K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4	SBS	사랑은 방울방울
5	MBC	언제나 봄날
6	KBS	다시 첫사랑
7	MBC	행복을 주는 사람
8	KBS	빛나라 은수
9	SBS	아임쏘리 강남구
10	MBC	황금주머니

티보플레이 1월 2째주 신규 방송

1	CJ	편의점을 털어라
2	CJ	보이스

티보플레이 1월 2째주 최신 영화

1	판도라	김남길, 김주현
---	-----	----------

'편의점을 털어라' 윤두준 먹방 MC까지 잘할 줄이야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윤두준이 MC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13일 첫 방송된 tvN 신개념 쿡방 '편의점을 털어라'를 통해 예능 MC에 도전에 나선 윤두준은 연기, 노래에 이어 예능까지 만능들의 위엄을 뽐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날 윤두준은 tvN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에서 맛깔진 시식 연기를 펼친 것에 이어 먹방 요정의 면모를 드러냈다. 치즈 불닭 볶음밥, 뽕이 '차슈딘나멘'을 큼지막하게 집어 한 입 가득 먹는 등 복스러운 먹방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군침을 돌게 만들었다.

이어, 윤두준은 '편의점의 털어라'의 대리로서 사장 이수근과 알바생 웬디(레드벨벳) MC들과 찰떡호흡을 자랑했다. 또한, 특유의 표정과 감칠맛 나는 리액션, 풍부한 맛 표현은 물론, 에너지 넘치는 예능감으로 MC 자질을 확인시켜줬다.

reddgreen35@news1.kr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Net, Olive, OCN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조인성 정우성

ONDemand KOREA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시국 싱크로율 99.9%

더킹

1월 27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신영의 **세상 스케치**

580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과유불급(過猶不及)

과유불급(過猶不及) 사자성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안팎으로 국제정세와 정치를 돌아보면 정신없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미국은 미국대로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인종차별적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흑인 민권운동가 알 샤프틴 목사가 이끈 거리행진에서 참가자들은 "정의 없이 평화 없다" "우리는 미국에 살기 위해 왔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동포들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내 조국의 정치·경제 안팎의 혼란스러움은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던가. 결혼한 딸의 입장이 라면 시댁의 며느리인 처지에서 친정이 든든해서 기를 펴고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입장이다 보니 내 나라가 든든해야 나 역시도 '아메리칸-

코리아'으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내 자리매김을 하며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요즘 안팎이 시끄러우니 내 머릿속도 혼란스럽다.

요즘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한국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많이 만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내 나라, 내 조국의 앞날에 대한 우려와 조바심 때문이라. 하지만 지금의 이 어둠과 혼란스러움이 새벽으로 가는 길목이길 앞으로 희망의 아침을 맞을 준비이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동안 오래도록 누적되었던 정치·경제 정경유착의 뿌리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길 바란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부정·부패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밝은 정치와 맑은 교육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새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이라.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흘러보내야 새 물이 들어오는 것이 삶의 이치이고 자연의 이치이다. 누구나 각자의 체질에 따라 음식의 종류와 양과 소화능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랜스레 남이 먹는다고 무턱대고 따라 먹었다가는 큰 탈이 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자와 신발이 있는 것이다. 모자가 너무 무거우면 목이 아파 병이 생기는 것이고, 신발이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하면 걷는 데 불편하고 더욱 힘만 들 뿐이다. 그러하기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자와 신발을 신어야 내 몸이 편안한 것이고 마음 또한 편안한 것이다.

이번 한국의 <최순실게이트-국정농단>의 사태를 찬찬히 지켜보면서 결국 과육이 부른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지 않던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는데 충족되지 않아 더 많이 더욱더 많이 그렇게 허욕을 부리다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 아니겠는가. 문득,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성선설과 성악설 중 무엇을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또 내 속에는 얼마만큼의 착함과 악함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며칠을 보내니 순간 나 자신과 나 아닌 또 다른 나를 한참 바라보며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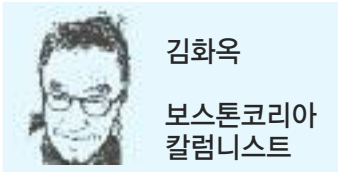
진정 진실은 존재하는가. 처음부터 시작한 거짓말 그 말의 꼬리는 어디까지이고 끝은 어디일까. 거짓말의 시작은 대통령으로

부터 시작해 고위관리와 행정관 그 아래에 까지 이어져 줄줄이 사탕처럼 모두가 거짓말의 연속이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앞선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반복된 거짓말쟁이 어른들을 보며 그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또 어떤 모습의 어른이 되어있을까. 참으로 막막해 온다. 가슴이 먹먹해 온다. 이 어둠과 캄캄한 터널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결국 나 자신을 알라는 것이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멈출 줄 알고 다시 출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자신의 자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떤 일에서든 어느 관계에서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과 선택과 책임이 중요한 까닭이다. 지나친 욕심은 허욕을 부르고 그 허욕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 욕심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곁의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며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과육은 결국 재앙을 부를 뿐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빛진 나그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빛진 나그네. 이영길 목사의 설교집 제목이다. 제목을 슬쩍 틀기로 했다. 빛진 나그네. 빛진자가 있다면 빛진자도 반드시 있는법. 오늘은 채무자債務者와 채권자債權者 이야기이다.

로마인 이야기의 시오노 나나미의 말이다. '빛을 많이 진 채무자 일수록 빛을 얻기도 쉽다.' 돈 빌리는 것도 채주인가 싶다. 로마시대 시저Caesar는 돈을 빌리는데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가 삼십대 초반일 적이다. 정치권에 입문할 즈음인데, 이미 1300 달란트 빛이 있었다. 이 돈은 10여 만명 이상의 군대를 일 년동안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많은 돈을 자기 치장과 여인들에게 뿌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 주변 인맥관리에 사용했지 싶다. 남의 돈으로 별짓 다했다. 시이저의 빛 높음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세월이 가면서 지위가 높아지면, 씀씀이는 더 늘어 날 수밖에 없다. 물론 빛도 늘어났을 것이다. 물론 채권자는 크라수스였다. 삼두정치의 한축이었던 그 인물이다. 크라수스가 코를 찧는지도 모르겠다. 빛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빛을 쬐는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아니면 크라수스도 정치적 야심을 위해 뒷돈을 대지 않았을까. 시이저가 유능하다 해야 하나, 아니면 크라수스가 음흉하다 해야 하나. 그 많은 빛을 청산했나?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이다. 그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시이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프랭클린에게는 정적이 있었다. 정적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 그에게 좋은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프랭클린은 책을 빌

려주십사 부탁했다. 대답은 흔쾌히 예스. 그 이후 책을 빌려준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고, 피차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위대한 인물들은 뭐든 잘 빌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비법秘法을 아는 모양이다. 프랭클린의 말이다. '적이 당신을 돕게 되면, 나중에 더욱 더 당신을 돕게 된다.' 셰익스피어 말과 다르다. '빛돈에 종종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

채권자가 갑甲이다. 채무자는 을乙이다. 빛진 이가 큰 소리 칠 수있다. 빛진 자는 머리 조아릴 수밖에 없다. 한국 대통령이 모 재벌 총수를 불러, 돈을 요구한 모양이다. 자세한 내막이야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채권/채무의 관계가 아니지 싶다. 힘있는 자에게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어느 누가 그 앞에서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겠나. 피차 친구가 되려 했던가? 쌍방이 서로 필요에 의해 돈이 오고갔을 건가? 그것도 모르겠다. 빛으로 빌려 준건지, 그냥 준건지 그것도 석연치 않다. 빛진 나그네가 욕본다.

우리가 빛진 자로되 (로마서 8:12)

1. 제목 뿐 아니라, 내용도 재미있다. 한번 읽어 보라 권한다. 책이 없다면 보스톤 한인교회로 연락하시라.
2. 1달란트는 금 34킬로그램의 값이다. 원화로 약 2억원쯤을 한다.
3. 프랭클린은 빌린 책을 돌려줬다. 책은 때때로 더 된다는 말이 있긴 하다.



2017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3.5 inch Super LCD Cluster Display, Apple CarPlay

MSRP, As shown, MS213295



LEASE \$69/mo.	MSRP \$15,631	FINANCE 0.9% APR
-------------------	------------------	---------------------

2016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MSRP, As shown, MS213295



LEASE \$89/mo.	MSRP \$13,290	FINANCE 0% APR
-------------------	------------------	-------------------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Honda Music, 8-SPEAKER PREMIUM SOUND SYSTEM, 17" Alloy Wheels, 160-hp, 180-Mph, 170-Mile/hour, 100-Mile/hour, 100-Mile/hour, 100-Mile/hour

MSRP, As shown, MS211529



LEASE \$119/mo.	MSRP \$12,798	FINANCE 0% APR
--------------------	------------------	-------------------

2017 Genesis G80 3.8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19" 5-spoke alloy wheels, 19" x 20" wheels, 19" x 20" wheels, 19" x 20" wheels

MSRP, As shown, MS211997



LEASE \$419/mo.	MSRP \$45,500	FINANCE 1.9%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18" Alloy Wheels, Fog Lights

MSRP, As shown, MS213295



LEASE \$129/mo.	MSRP \$23,527	FINANCE 0.9% APR
--------------------	------------------	---------------------

2017 Hyundai Tucson SE

This vehicle features:
 Drive Blind Spot Warning, 8 inch Color Touchscreen, Apple CarPlay, Android Auto

MSRP, As shown, MS213295



LEASE \$175/mo.	MSRP \$20,248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onata SE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17" Alloy Wheels, Bluetooth, Apple CarPlay

MSRP, As shown, MS211300



LEASE \$129/mo.	MSRP \$18,197	FINANCE 0% APR
--------------------	------------------	-------------------

2017 Hyundai Santa Fe SE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18" Alloy Wheels, Fog Lights

MSRP, As shown, MS213295



LEASE \$159/mo.	MSRP \$29,003	FINANCE 0% APR
--------------------	------------------	-------------------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90 monthly payments of \$17.46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22. 두 인디언과 두 백인 (3)



〈자난호에 소개된 찰스 이스트만(Charles Eastman)〉

잭슨 여사 (계속)

소설의 주인공 라모나는 고아로서 스코틀랜드 출신 아버지와 인디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여인이다. 라모나와 그녀의 인디언 남편 알레산드로(Alessandro)가 자신들의 땅을 갖기 위하여 온갖 고초를 겪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이다. 소설의 등장인물과 사건들은 잭슨이 직접 만나 보거나 경험한 내용들이었다. 그 소설이 발간되자 빠르게

인기를 얻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출판 이후 몇 세대를 넘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300번이나 판을 거듭하여 발행되었다고 한다. 소설 속 로맨틱한 장소를 직접 찾아보기 위하여 남부 캘리포니아로 일부러 여행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잭슨은 그의 첫 소설의 성공에 고무되어 인디언 문제에 관련된 어린이 이야기를 쓸 계획이었으나 빨리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완성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클리블랜드(Cleveland)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편지를 보냈다.

“나는 임종을 맞으면서 귀하에게 귀하가 인디언들을 위하여 이미 해 주신 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보냅니다. 내가 쓴 ‘A Century of Dishonor’ 를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오명의 짐을 벗고 인디언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처음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귀하의 운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에 더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고자 합니다.”

1885년 55세의 아직 이른 나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무덤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에버그린 공동묘지에 있다. 그녀가 죽은 지 일 년 뒤 North American Review에서는

소설 ‘로마노’ 를 미국 여류작가 소설 중에서는 단연 으뜸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앵글 톰스 캐빈’ 과 더불어 19세기 최고의 윤리적인 소설이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그녀의 소설과 인디언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건강을 해칠 정도로 기울인 열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인디언 문제에 대한 개혁가들을 불러 모으는 데에 촉매제가 되었다.



〈잭슨(Helen Hunt Jackson)〉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62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唵(1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다. 삼국사기를 보면, 그들 사이에는 진흥왕과 속흥종 두 아들과 딸 만호를 두었다. 그리고 만호는 진흥왕의 아들 동륜, 즉 조카와 결혼하여 진평왕, 진정갈문왕, 진안갈문왕 등을 낳았다. 그리고 동륜이 아버지의 후궁인 보명궁주의 치마폭을 찾아 월담을 하다가 ‘개 사건’ 으로 죽고난 후 왕후의 꿈은 사라졌고 다시 오빠인 속흥종과 혼인하여 만명부인(김유신의 어머니)을 낳았다.

하지만 화랑세기에서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필사본이 위서가 아니라면 신라인이 쓴 기록이 더 정확하리라고 믿는다. 화랑세기에는 금진이 임종갈문왕과 통정하여 속흥종을 낳았다. 즉 속흥종은 진흥왕과 동부이복 형제이다. 또한 만호부인의 출생 역시 요절한 임종의 딸이 아니라 지소가 남편과 사별 후 4세 풍월주 이화랑과 관계하여 낳은 딸이다. 결과적으로 속흥종과 만호는 같은 부모를 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친혼과도 거리가 멀다. 결과적으로 속흥종의 부모(임종과 금진)와 만호의 부모(이화랑과 지소태후)는 전혀 다르다. 삼국사기만 보면 동부동복의 오누이가 결혼했지만, 화랑세기에 따르면 속흥종과 만호는 이부이복이다.

이제 사다함과 속흥종의 관계를 보면, 그들은 이부동복 형제이다.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은 1세 풍월주 위화랑이 보도부인과 사통하여

태어났다. 그리고 범흥왕의 후궁이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범흥왕의 동생 임종과 통정하여 속흥종을 낳았다. 금진은 범흥왕이 죽은 후 출궁 당하여 살았다. 오래 전부터 금진을 사모했던 신하 구리지와 통정하여 토함과 사다함 그리고 딸 새달을 낳았다. 그리고 금진은 구리지가 독산성 전투에 나가 있는 동안에 구리지의 용양신 설성과 사통하여 설원랑을 낳았다. 그리고 금진은 곧 토함과 사다함, 새달을 데리고 진흥왕의 아들 동륜태자의 유모로 왕궁에 들어 갔다. 왕궁에서 유모로 있는 동안 진흥왕의 딸인 난성공주를 출산하였다.

사다함은 화랑도의 부제로 있을 당시 여러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금진의 남자 설성도 백제를 정벌하는데 출전하여 높은 공을 세우자 진흥왕이 설성에게 ...찬의 직위를 주고 금진을 설성에게 정식으로 내려주었다. 하지만 사다함 형제는 임금이 하사한 집이나 본장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고 나왔다. 아마도 사다함의 신분이 진골(삼국사기 사다함조)이고 설성은 골품이 없기에 어머니의 남편으로 인정했지만 아버지로는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걸로 보여진다. 이 때부터 아마도 속흥종도 어머니 금진과 의절하고 살아 온 것 같다. 한편 사다함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효성이 지극하였다. 신분이 낮은 설성을 계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다함이 보인 효성은 화랑세기 여

러곳에서 나타난다.

위의 화랑세기의 내용은 이러한 배경을 두고 당시까지 의절한 상태로 살던 금진과 아들 속흥종의 조우를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사다함이 속흥종의 행차를 붙잡고 설득하여 모자간의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다. 다시 한번 사다함의 우애와 효성심이 우러나는 모습이다. 어머니 금진 역시 아들 사다함을 사랑하였다. 사다함은 당시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의 여인인 미실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가야정벌에 종전하였다가 돌아와보니 사랑하는 미실은 세종의 부인이 되어 있었고 또한 가장 친한 벗이자 부하인 무관랑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다가 그만 요절하였다. 그 무관랑의 죽음은 금진의 호색에서 비롯되었다. 금진은 구리지와 설성이 모두 전사한 뒤 무관랑을 침실로 불러드렸다. 이에 괴로워한 무관랑은 월성 구지에 뛰어내리다 크게 다쳐서 죽었다. 하지만 금진의 색기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위에 등장하는 진종(36대 효성왕비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다)과 아버지가 불분명한 딸 준영이 이를 말해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휴람 특별가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룰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1 휴람 안 종합검진 (베이직 : 소요시간 30~40분 / 프리미엄 : 1시간 30분)

40대 이상과 70대 이상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 1) 휴람 베이직 안검진 : **10만원** (10여 가지 검사)
 - 시력상테, 안압측정, 두광검, 망막이영역의 기본적인 검사 확인
 - 기능성안검진 (이안, 안공안검, 세기력, 근거리, 노안) + 세기상테(이안, 이안, 안공안검)
- 2) 휴람 프리미엄 안검진 : **25만원** (100여 가지 검사)
 - 기능성안검진(이안)과 세기상테(이안)를 포함한 세기상테(이안)를 포함합니다.
 - 휴람 베이직 + 근거리 + 안압측정 + 안공안검 + 세기상테(이안) + 세기상테(이안) + 세기상테(이안) + 세기상테(이안)

2 노안 잡는 노인성 백내장 수술 (노안 + 백내장 해결)

노안과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술에 따라 시력을 회복시켜주며, 시력도 보정, 정숙도 보정, 시력에도 정숙도 보정도 함께 보정 가능합니다.

- 1) 노안교정 백내장 : **299만원** (양안) : 겸사 & 산출비 모두 포함
- 2) 다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백내장 : **640만원** (양안) : 겸사 & 산출비 모두 포함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수술이 임무로 라식라섹을 놓치셨다면?
노안이 와서 레이저 라식라섹수술을 생각하셨던가요? (노안 때문)

150만원 (프리미엄 안검사 포함)

4 2030 라식라섹 **130만원** (DNA(10만원 상당), 안종합검진 포함)

※ 수술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양안 수술 가능합니다.
※ 수술에 관련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종합검진 산내를 제외하기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다면...**

20~30대 여러가지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한
한 노안보정이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영도문 등을
돋보기를 통해 봐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안이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
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해외의료사건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a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Buck v. Bell (1927): 광기에 지배당한 지성 1.

“만일 우리 사회가 명백하게 이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예 태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면, 그들의 타락한 자손들이 범죄를 저질러 처형되기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들의 저능으로 인해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의 출산을 막는 것이 전 세계에게 더 낫다. 삼대의 저능은 출산을 금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1927년 Buck v. Bell 판결에서 대법원 판사 올리버 웬델 홀름스(Oliver Wendel Holmes Jr.)가 했던 말이다. 판결은 (수감 시설에 수용된) ‘정신박약자 (feebleminded)’ 들을 대상으로, 환자의 동의 없는 불임시술을 강제했던 버지니아의 불임시술법 (Sterilization Act of 1924)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원고는 버지니아 샬로츠빌 출신의 1906년 생 젊은 백인 여성 캐리 벅 (Carrie Buck). 그녀의 어머니 에마 (Emma Buck)는 싱글맘이었다. 구걸과 매춘을 하다가 정신 이상자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캐리는 앨리스 돕스 (Alice Dobbs)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그녀는 돕스 가족의 허드렛일을 하면서 한편 5학년까지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17세때, 돕스 부부의 조카로부터 강간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

딸인 비비안을 출산했다. 집안의 치부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기에, 돕스부부는 의사들을 통해 캐리가 ‘간질발작’ 과 ‘정신박약’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낸 후, 캐리를 정신이상자 수용 시설로 보내고, 캐리가 낳은 딸을 대신하여 키웠다. 캐리가 수용소를 나가려하자 버지니아주는 1924년 불임시술법을 근거로 캐리에게 강제로 불임시술을 시행하려 하였다.

캐리 벅의 입장에서 보자면 버지니아의 강제 불임시술법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 8조의 위반이었으며, 법 앞에 평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 14조의 위반이기도 했을 것이다. 캐리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을 시행하려 했던 버지니아 주정부가 1924년 강제시술법의 위헌요소를 몰랐을까? 오히려 이 법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정신이 박약하기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캐리 벅의 변호인조차 불임시술법의 지지자였다. 사실 불임시술법 지지자들은 캐리 벅의 케이스를 정신박약은 유전되기때문에 강제시술법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케이스” 로, 그리고 앞으로의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했다.

박사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일종의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법정에서 증언한다. 사실 학교에 다닐 때 나름 괜찮은 학생 평

가를 받았던 캐리였지만, 그녀는 정신박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에마와 캐리 벅스는 성적으로 문란하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증거다” 그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 그녀들이 강간에 의한-따라서 혼외관계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때문이다. “캐다가 캐리의 딸도 다분히 정신박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이 판단이 내려지던 시점에 캐리의 딸은 고작 7개월. 박사님들은 어떤 근거로 7개월짜리 비비안이 정신박약아로 클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을까? “애가 뒤로 가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황당하지만, 이리하여 대법관 홀름스가 이야기하는 “3대에 걸친 정신박약” 스토리는 완성되었다. 대법원은 “환자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정신 이상자들에게 불임시술을 해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법은 어떤 종류의 사람은 태어나도 좋고 어떤 종류의 사람은 태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을까? 이 비인간적이고도 황당무계한 버지니아의 강제 불임시술법은 왜 탄생했을까? 첫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일 것 같다. 20세기 초반, 간질 발작 환자와 정신이상자를 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이 지어졌다. 그러나 수용소를 관

리하던 알버트 프리디 박사는 시설 입소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주정부 예산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아예 그 수를 줄여버리자고 주장했던 것. 그렇다면 과연 무슨 근거로 대법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며, 저능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20세기 초반, 지금은 이름도 생소한 ‘우생학’에 근거, 열등한 사람들의 출산을 억제함으로써 인류 전반을 개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했다. 즉, 버지니아의 불임시술법은 우생학적 단종법 (斷種法)이었다. 따지고 보면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결코 다르지 않은 논리인 셈이다.

그런데 우생학에 근거한 불임시술법은 버지니아에만 특이하게 존재했던 법이 아니다. 1907년 제일먼저 인디애나가 버지니아와 비슷한 근거를 가진 강제 불임시술법을 통과시켰다. 그후로 25년간 불임시술법은 약 30개주에서 앞다투어 통과되었다. 벅 대 벨 판결은 20세기 초반 미국의 많은 주가 시행하고 있었던 불임시술법에 일종의 헌법적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약 65,000명의 사람들이 정신 박약을 이유로, 혹은 다른 종류의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소인을 이유로 강제 불임시술의 대상이 되었다. (계속)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무료 견적서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메인부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경백-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제 사업(대량용 남부 사업소 판공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라본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k, 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 20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 Tel:978.664.2321, Fax:978.664.2314

E-mail:autobody.hk@gam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막힌 차선 막판 끼어들기가 교통흐름에 좋은 이유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차선 전방에서 단행”이란 오렌지 색 표지를 보는 순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옆차선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운전자들의 행동이 결국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간을 끌게 된다고 지적했다.

차선이 단행하는 표지를 보고도 계속 질주해 마지막에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것은 예외상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래픽 엔지니어들과 교통부 관계자들은 바로 마지막까지 운전해서 막판에 끼어들어 합류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한다.

마지막에 끼어들기(late merge or zipper merge) 즉, 단행 차선에서 끝까지 주행하다가 거의 닫히는 지점에서 다른 차선에 합류하는 것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도 줄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통관련 서적의 저자 탐 밴더빌트 씨는 “늦게 끼어드는 것이 개인적 욕심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콜로라도주는 고속도로 공사중 10년이 넘도록 막판 끼어들기를 권장했으며 차선이 닫히는 2마일 전부터 시

작해 차선폐쇄 교통표지판을 부착했다. 첫번째 교통표지판은 “교통 혼잡 시에는 두차선 모두 사용하세요”라고 부착했으며 두번째 표지판에는 “합류지점까지 두차선 모두 사용하세요”라고 표시했다. 차선이 폐쇄되는 지점에 마지막 표지판을 설치해 “차선을 옮겨 끼어드세요”라고 적었다.

콜로라도 교통부의 엔지니어 K.C. 매튜씨는 “이 결과 도로작업 지역을 15%차량이 더 많이 통과했으며 늘어선 차선의 길이는 무려 5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접근은 특히 천천히 움직이는 교통상황에서 효과적이며 운전자가 폐쇄되는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

캔사스시티 교통부의 엔지니어 크리스티 에릭슨도 “한쪽 차선은 거의 정지되어 있고 다른 차선은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교통의 흐름에 커다란 차이를 내며 특히 난폭운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막판 합류하기를 권장한 이후 두 차선의 대기행렬이 약 50%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새치기” 감정을 적용했을 때 막판 끼어들기는 어려워진다고 밴더빌트는 밝혔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맨처음으로 가서 서는 사람처럼

막판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 무례하다고 여기는 경우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들을 교통 감시요원인양 생각하고

사회적 규범을 적용해 끼어드는 차량을 막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치기 하듯이 끼어드는 차량을

좋아하는 운전자는 없기 때문이다. hsb@bostonkorea.com



최상의 리스 딜 이렇게 하면 얻는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차를 사는 것처럼, 리스도 마찬가지로 협상이 가능하다. 리스는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다운페이먼트와 월 페이먼트가 적게 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실증이 날만 하면 새로운 차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운전을 많이하거나 장거리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리스를 삼가야 한다. 모든 리스에는 마일리지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리스를 결심했다면, 리스 가격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비용을 아는 게 필요하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에서 알려주는 리스와 관련된 아래 팁을 알아본다.

1. 차를 구입하든 리스를 선택하든 가장 싼 가격을 얻기 위해 여러 경쟁 딜러를 찾아다녀야 한다. 즉 베스트 리스 조건을 찾아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딜러간 경쟁만이 소비자 좋은 딜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2. 자동차 모델을 먼저 정해라. 그런후 반드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봐야 한다. 차가 편안한지, 밖은 잘 보이는지 사이드 미러는 쉽게 조절 가능한지, 소음은 없는지, 차외부 소음은 잘 차단되는지, 음향 품질은 어떤지, 서스펜션

은 좋은지 점검하는 상황이다. 이순간에도 절대 리스의 리자도 입에서 꺼내서는 안된다. 가능하다면 바로 구입을 결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

3. 집으로 돌아오면 딜러들이 제시했던 가격을 비교해보고 과연 월 얼마만큼의 페이먼트가 가능한지 본인의 재정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그중에 가장 적절한 딜러로 결정해 다시 방문한다.

4. 딜러를 다시 방문했다면 전체 구입 가격을 먼저 협상하라. 구입가격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리스를 말하거나 절대 월 페이먼트를 협상하지 말라. 전체구입가격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월 페이먼트가 결정된다.

5. 컨슈머리포터에서 14불만 내면 새차 가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딜러와 끝까지 협상해서 가격은 딜러의 도매가격(dealer's wholesale price)과 제조사의 권장 소비자 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의 중간지점 정도에서 결정해야 한다.

•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리스한다. 단기 리스는 리스의 최대 장점인 새 차를 자주 타는 기

회를 준다. 결국에 소유하지 않을 차를 4-5년 씩 돈 내고 타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차의 워런티기간보다더 길게리스하지 않는 게 좋다.

• 딜러가 창문 보호 상품 같은 다른 것을 끼워팔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내 차도 아닌데 왜 돈을 내나. 다른 사람 배만 불러줄 뿐이다.

hsb@bostonkorea.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중앙대학교병원



전문 의료진 75명 / 40여개 의료장비(MRI, MRA, MDCT, PET CT 포함)

- ◎ 진담 간호사 1:1 사진 맞춤 상담
- ◎ 워치장 내시경 당일 동시검사 시행
- ◎ 1:1 에스코드 / RFID 전자 태그 시스템
- ◎ 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수의 시술 및 판정
- ◎ 첨단장비를 통한 신뢰성 있는 조기진단
- ◎ 신속한 외래진료 합연 및 응급 의료 시스템
- ◎ 검진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 시행
- ◎ 결과 및 영영상상과 과거 검진결과의 비교분석

휴람
3주년기념
특별할인
12월 31일(토)까지

기본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p>[50세미만] 55만원 → 49만5천원</p> <p>신체측, 체지방분석, 안과진찰, 안저 사진, 상복부 초음파(간, 췌장, 담낭, 황반, 안배설, 기관지, 폐, 심장, C형간염, B형간염, HBsAg, HBcAb, HBsAb, HBV-DNA), 흉부엑스선, 뇌파검사, 뇌혈관 MRI, 심장초음파, 대장내시경, 직장진찰, 대변 검사, 소변 검사, PSA, 전립선 초음파, 유방촬영술, 자궁내막 초음파, 자궁경부 조직검사, 자궁경부암 검사</p> <p>[50세이상] 67만원 → 60만3천원</p> <p>50세미만 기본검진 + 심혈관계 + 뇌신경 검사 + 모든 암검진(유방)</p>	<p>[50세미만] 59만원 → 53만1천원</p> <p>신체측, 체지방분석, 안과진찰, 안저 사진, 상복부 초음파(간, 췌장, 담낭, 황반, 안배설, 기관지, 폐, 심장, C형간염, B형간염, HBsAg, HBcAb, HBsAb, HBV-DNA), 흉부엑스선, 뇌파검사, 뇌혈관 MRI, 심장초음파, 대장내시경, 직장진찰, 대변 검사, 소변 검사, PSA, 전립선 초음파, 유방촬영술, 자궁내막 초음파, 자궁경부 조직검사, 자궁경부암 검사</p> <p>[50세이상] 69만원 → 62만1천원</p> <p>50세미만 기본검진 + 골밀도, 차등초음파</p>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p>신체부위별 정밀검진</p> <p>1. 소화기정밀: 50세미만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 100만원 → 90만원</p> <p>2. 심장정밀: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정밀검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100만원 → 90만원</p> <p>3. 뇌정밀: 50세미만 기본검진 + 뇌파검사, 뇌 MRI & MRA, 컴퓨터촬영 150만원 → 135만원</p> <p>정밀검진</p> <p>1. 알함발: 50세미만 기본검진 + 자선당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흉부엑스선, 유방촬영술,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 MRI-D 200만원 → 180만원</p> <p>2. 프리미엄정밀: 일명정밀검사 + 뇌 - 심장정밀검사, 뇌 MRI & MRA, 폐 - 심장촬영 300만원 → 270만원</p> <p>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유방촬영술, 대장내시경(수술), 자궁내막 초음파, 자궁경부 조직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PSA, 전립선 초음파, 뇌 - 심장정밀검사, 뇌 MRI & MRA, 폐촬영술, 관상동맥CT</p>	<p>신체부위별 정밀검진</p> <p>1. 소화기정밀: 50세미만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 110만원 → 99만원</p> <p>2. 심장정밀: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정밀검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110만원 → 99만원</p> <p>3. 뇌정밀: 50세미만 기본검진 + 뇌파검사, 뇌 MRI & MRA, 컴퓨터촬영 154만원 → 138만원</p> <p>정밀검진</p> <p>1. 알함발: 50세미만 기본검진 + 자선당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흉부엑스선, 유방촬영술,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 MRI-D 220만원 → 198만원</p> <p>2. 프리미엄정밀: 일명정밀검사 + 뇌 - 심장정밀검사, 뇌 MRI & MRA, 폐 - 심장촬영 320만원 → 288만원</p> <p>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유방촬영술, 대장내시경(수술), 자궁내막 초음파, 자궁경부 조직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PSA, 전립선 초음파, 뇌 - 심장정밀검사, 뇌 MRI & MRA, 폐촬영술, 관상동맥CT</p>

속박(다이아몬드)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p>480만원 → 432만원</p> <p>1. 소화기정밀: 내시경(수술),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p> <p>2. 심장정밀: 심장정밀검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p> <p>3. 뇌정밀: 뇌파검사, 뇌 MRI & MRA, 컴퓨터촬영</p> <p>4. 폐정밀: 자선당 초음파 / 5. 알함발: PET-CT</p> <p>6. 척추정밀: 영구MRI, 복부MRI</p> <p>7. 내분비정밀: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MRI</p> <p>8. 남성정밀: 유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p> <p>9. 기타: 뇌파검사, 차등초음파</p>	<p>500만원 → 450만원</p> <p>1. 소화기정밀: 내시경(수술),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p> <p>2. 심장정밀: 심장정밀검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p> <p>3. 뇌정밀: 뇌파검사, 뇌 MRI & MRA, 컴퓨터촬영</p> <p>4. 폐정밀: 자선당 초음파 / 5. 알함발: PET-CT</p> <p>6. 척추정밀: 영구MRI, 복부MRI</p> <p>7. 내분비정밀: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MRI</p> <p>8. 여성정밀: 유방초음파, 자궁내막 초음파, 자궁경부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p> <p>9. 기타: 진찰, 혈액, 자궁 초음파</p>

* 토요일: 매일 2회, 4째주 토요일 / * 위치: 서빙시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3층 건강검진센터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s.com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69) 인덱스 펀드와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식시장을 뒤돌아 보며 투자자로서 2017년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2016년에 미국 투자자는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에서 \$358.8 billion을 꺼내어 \$479.8 billion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Year in Review: 2016 Saw Record Flows to Index Funds, WSJ, Dec. 29, 2016) *참고로 \$1 billion은 1,000 million이라는 큰돈입니다.

투자자가 뮤추얼 펀드에서 인덱스 펀드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자가 20여 년 전부터 제대로 하는 투자는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수익률 때문입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유망하다고 전망하는 회사 주식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선별가(Stock Analyst)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회사 규모에 의해서 이미 선정되어 있으므로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S&P 500은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500개 회사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회사는 투자하지 않고 수익률이 높은 회사만 선정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뮤추얼 펀드 투자입니다. 문득 생각하면 정보력도 많고 투자 돈도 풍부한 뮤추얼 펀드가 회사를 잘 선정해서 투자하기에 수익률도 인덱스 펀드보다 분명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모든 뮤추얼 펀드 중에서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높은 뮤추얼 펀드는 2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Wall Street's "Do-Nothing" Investing Revolution, WSJ, Oct. 17, 2016)

새해를 맞이하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일반 투자자나 투자자를 도와주는 재정설계사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정설계사가 탑 20%에 속한 뮤추얼 펀드를 선정해서 투자한

다고요? 한 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필자나 재정설계사는 절대 투자전문가가 아닙니다. 투자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펀드매니저도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떨어집니다.

어떤 재정설계사가 운이 좋아서 탑 25%(Top Quartile)에 속한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같은 뮤추얼 펀드가 탑 25%에 속할 확률이 얼마일까요? 단 7.33%입니다(S&P Dow Jones Indices). 이 말은 1년 전에 100개의 뮤추얼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펀드 25개 중에서 2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뮤추얼 펀드는 단 1.4개라는 뜻입니다.

2016년 주식시장은 10.8% 수익률입니다.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인 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한 결과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재정설계사 도움으로 투자한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투자 경비 역시 뮤추얼 펀드는 인덱스 펀드보다 많습니다. 뮤추얼 펀드매니저, 주식선별가, 등 모든 사람이

봉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설계사도 손님의 돈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샘얼슨(Paul Samuelson)은 '투자 전문가가 유망한 회사 주식을 선별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고 언급했습니다. 프린스턴의 경제학자인 매키엘(Burton Malkiel)은 '주식전문가 혹은 펀드 매니저가 주식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을 확률은 거의 없다.' 라고 그의 책(A Random Walk Down Wall Street)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찰리 엘리스(Charles Ellis)도 50여 년의 투자경험(Index Revolution)으로 인덱스 펀드를 추천합니다.

필자 회사의 모든 고객(Client) 포트폴리오는 인덱스 펀드와 같은 ETF 종목을 이용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평균 투자 경비가 단 0.1%이기에 주식시장에서 나온 수익률을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도 인덱스 펀드나 ETF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전공별 H-1B 성공 전략: 건축 (Architecture) 관련 전공자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들이 많습니다. Architect Magazine에서 뽑은 2015년 최고의 건축회사 리스트를 살펴보면, 1, 2위를 한 Adrian Smith + Gordon Gill Architecture나 SOM이라고 불리는 Skidmore, Owings & Merrill 뿐만 아니라 리스트의 대부분이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주요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건축시장은 건축학도라면 한 번쯤 도전하고 싶은 곳입니다. 미국 내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도 비슷한 이유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H-1B 비이민 취업 비자는 반드시 고려해봐야 하는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건축학과를 갓 졸업하고 건축회사에서 H-1B스폰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 건축

사 (Architecture)로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건축사로서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되는 보직은 하는 일에 따라 건축 디자이너 (Architectural Designer, Design Architect) 혹은 건축 프로젝트 매니저(Architectural manager)입니다. 건축학 관련 보직은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건축학 학사 학위도 학위 평가를 통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건축 회사에 취업한 경우, 설사 H-1B 쿼터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다른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O-1예술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와 달리 건축 디자이너는 예술가로서 보직이 인정됩니다. 이민국은 대형 건축 프로젝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대

부분의 프로젝트가 개인보다 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어떤 프로젝트로 회사가 상을 받은 경우에도 프로젝트에서 개인의 중요한 역할만 확인된다면 개인의 수상으로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O비자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H-1B와 O-1을 함께 준비하여 추첨에 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하고자 하는 건축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L-1이 가능한 케이스들도 간혹 보아왔습니다. 혹은 일하고자 하는 건축회사가 외국인 건축가 E비자로 설립한 회사라면 회사 직원으로 E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H-1B외에 다른 비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개개인의 프로젝트나 이전 경력, 회사의 특이점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는 꿈을 꾸고 계시는 많은 유학생 여러분, 이번 H-1B신청에 있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H-1B는 각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송동호 종합로펌이 함께 합니다.

네이버에서 "H-1B 법률 칼럼"을 검색해보세요.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기업 고객

국제법
 근용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법 및 M&A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법
 사고 손해
 상법
 세금, 상속, 유언

수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법
 터렛, 지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 songlawfirm1
-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SONGLAWFIRM.CO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1.2M 히바치+스시, 플리커 면허증
좋은 매매가격 \$3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플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아침/점심 보스톤쪽 주6일 영업 연매상 \$300,000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단독건물, 셀러은퇴(건물주)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플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좋은 렌트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예체능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및 섬머,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2 | AP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단기 교육점 완성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의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과목을
개인 과외 및 스카이프 가능

겨울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 기간: 12월 19일(월) - 12월 30(금)
- 시간: 9:00am - 8:00pm

- SAT I New Class**
실력있는 강사진 과 실전문제 중심 위주 프로그램
새로운 문제 유형에 따른 접근 방식 집중 공략
- SAT II Subject Test Class**
Math IIC, Chemistry, Biology, Physics
- AP전과목 및 선행 학습과 개인 수업 과외**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